

숙명의 생각이
미래를 바꿉니다



CREATIVE LEADERS WITH POWER OF THINKING

숙명 2012

전공안내서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Humanistic Value

인문적 소양



인간과 사회, 그리고 세계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숙명은 학문의 기본과 원칙을 먼저 생각합니다.



Creative Knowledge

창의적 전문지식



같은 시대를 다르게 살아가는 리더의 창조적 지성은
더 새로운 사고와 더 깊은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CREATIVE LEADERS WITH POWER OF THINKI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lobal Leadership

글로벌 리더십

{
숙명은 세계를 배우고 세계는 숙명을 배우게 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진정한 글로벌화에 앞장섭니다.
}



Passionate Volunteerism

이타적 열정

{
능력과 품성을 두루 갖춘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행복한 지식인을 꿈꿉니다.
}

생각부터 다르기에 미래가 다른 대학

숙명이 리본합니다

숙명의 전통	14	학사제도	102
숙명의 비전	16	국제교류 프로그램	104
숙명의 인재상	18	장학제도/리더십그룹/동아리	106
블루리본 프로젝트	20	캠퍼스 안내	109

25 COLLEGE OF LIBERAL ARTS

문과대학

한국어문학부	26
역사문화학과	27
프랑스언어·문화학과	28
중어중문학부	29
독일언어·문화학과	30
일본학과	31
문헌정보학과	32
문화관광학전공	33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	34
교육학부	35

37 COLLEGE OF SCIENCE

이과대학

나노물리학과	38
화학과	39
생명과학과	40
의약과학과	41
수학과	42
통계학과	43
컴퓨터과학부	44
멀티미디어과학과	45
체육교육과	46
무용과	47

49 COLLEGE OF HUMAN ECOLOGY

생활과학대학

가족자원경영학과	50
아동복지학부	51
의류학과	52
식품영양학과	53

71 COLLEGE OF MUSIC

음악대학

피아노과	72
관현악과	73
성악과	74
작곡과	75

77 COLLEGE OF PHARMACY

약학대학

약학부	78
-----	----

81 COLLEGE OF FINE ARTS

미술대학

시각·영상디자인과	82
산업디자인과	83
환경디자인과	84
공예과	85
회화과	86

Contents

55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56
행정학과	57
홍보광고학과	58
소비자경제학과	59
사회심리학과	60

63 COLLEGE OF LAW

법과대학

법학부	64
-----	----

67 COLLEGE OF ECONOMICS & BUSINESS ADMINISTRATION

경상대학

경제학부	68
경영학부	69

89 SCHOOL OF GLOBAL SERVICE

글로벌서비스학부

글로벌협력전공	90
앙트러프러너십전공	91

93 SCHOOL OF ENGLISH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94
테슬(TESL)전공	95

98 SCHOOL OF COMMUNICATION & MEDIA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99
-------	----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과 최상의 교수진,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중심의 최적의 교육 지원 서비스가 펼쳐지는 곳, 늘 새롭고 앞선 시각을 통해 더 큰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숙명만의 노력과 결실. 교육에 대한 숙명여자대학교의 신념과 실천의지는 남다릅니다.







첨단 설비와 친환경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캠퍼스에서 교육의 생기가 피어납니다.
국내 대학 최초로 실현한 유비쿼터스 캠퍼스, 끊임없이 환경과 시설을 변화시킨 최첨단 시설, 그리고
문화의 숨결이 흐르는 숙명만의 다양한 공간에서 21세기 인재 양성과 문화 선진국을 이끌어나가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숙명은 100여 종의 다양한 교내외 장학제도로 전국 최상위권의 수혜율을 자랑하며 다양하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수한 소수만을 위한 인센티브가 아닌 노력하는 다수를 위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배려하고 지원합니다.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을 갖춘 미래의 글로벌 인재가 숙명에서 자라납니다. 해외 우수 대학교와의 다양한 학술 교류,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선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글로벌 대학교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무한한 열정으로 세계를 향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도전합니다.





{ Sookmyung Tradition }

숙명의 전통

여성교육과 구국애족의
염원으로 태어난 숙명
이제 숙명의 빛은
세계 평화와 인류발전의
미래를 향해
비추어질 것입니다



1906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듬해, 국가존망이 위태로운 당시 상황에서 조선왕실은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최초의 민족여성대학인 명신여학교(明新女學校)를 설립하였습니다. 명신은 3년 후 숙명여학교로 개명하였고, 1938년에 숙명여전으로, 1948년 이후 숙명여자대학으로 성장해 오면서 민족의 정통성을 지닌 여자 고등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담당하였습니다.

1955년 숙명여자대학교로 승격되면서 여성 최고의 종합대학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창학 이래 수많은 우수 여성 인재를 키우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온 숙명은 100년 이 넘는 역사를 이어가며 '생각하는 힘을 가진 창조적 인재양성'이라는 교육목표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긍지로 인간과 학문의 본질에서 출발하여 세계화 역량을 갖춘 명품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세계화 역량을 갖춘 숙명 인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세계시민으로 육성하는 대학! 국내 최초의 민족여성대학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 최고의 대학을 향한 숙명의 눈부신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History of Sookmyung

1906 • 명신여학교 설립 조선왕실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여성 사학
1938 • 숙명여자전 문학교 창립 여성전문교육기관으로 가정, 기예, 전수과로 개교
1948 • 숙명여자대학 승격 여자대학으로 승격, 6개 학과 설치
1955 • 숙명여자대학교 승격 종합대학교로 승격, 4개 단과대학 8개학과 설치, 대학원 설립
1995 • 제2창학 선언 숙명 제2창학 발기인대회를 통해 제2창학운동 전개
1997 • 대학종합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 교육, 교수, 사회봉사, 시설설비, 연구, 재정경영 6개분야 최우수
1998 • 국내 대학 최초 모바일 캠퍼스 구축 대한민국 최고의 디지털 대학으로 인정
2005 • SM VISION 2020 선포 '세계 최고의 리더십대학' 비전 수립, 제2창학 캠퍼스 완성
2006 • 창학100주년 '백년의 숙명, 천년의 빛'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기념식 거행
2009 • 교육혁신대상 수상 대한민국 경영혁신대상 대학부문, 혁신리더부문 종합대상 수상, The Company of Korea 2009 교육혁신대상 수상
2010 • 숙명 블루리본 프로젝트 선포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중 · 장기 프로젝트
• 참교육대상 인재교육부문 수상 • 국내 최초 여자대학 1호 ROTC 선정
2011 •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 수상 • 상생을 위한 사회 책임경영대학 선정
2012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 고용노동부 창조캠퍼스 지원대학 선정

{ Sookmyung Visi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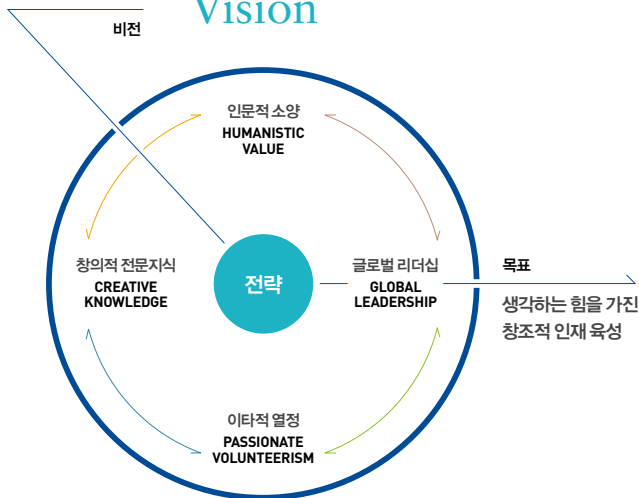
숙명의 비전

생각하는 힘을 가진
창조적 리더 양성을 위해
숙명은 긴 호흡과
큰 걸음으로
앞서나갑니다.

민족적 긍지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적 리더십 대학

비전

Vision



생각하는 힘을 가진 창조적 여성리더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글로벌화’, ‘다양성과 조화’, ‘소통(疏通)’의 시대인 21세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21세기형 리더를 양성하는 것은 100여 년 전 구국애족의 창학 이념 아래 설립된 최초의 여성 사학인 우리 숙명여자대학교가 추구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자 목표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민족적 긍지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적 리더십 대학’이라는 비전과 함께 ‘생각하는 힘을 가진 창조적 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가진 창조적 인재’란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회공헌적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인격과 지식이 배양된 글로벌 리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재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학문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공익의 실현과 건전한 시민사회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인문적 소양(Humanistic Value), 창의적 전문지식(Creative Knowledge), 글로벌 리더십(Global Leadership), 이타적 열정(Passionate Volunteerism)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Sookmyung People }

숙명의 인재상

‘생각하는 힘을 가진
창조적 인재’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
숙명인들은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이
될 것입니다







Sookmyung Blue Ribbon Project

숙명 블루리본 프로젝트



Sookmyung
blue ribbon

숙명이 리본합니다 Rebo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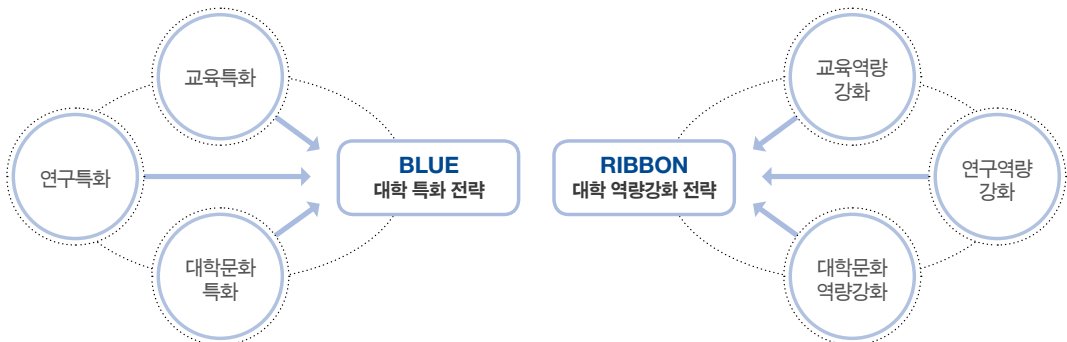
생각하는 힘을 가진 차가운 머리로,
신념과 열정을 담은 뜨거운 가슴으로,
사회적 책임을 짊어질 당당한 어깨로,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자유로운 두 발로,
그리고 세상을 통찰하는 빛나는 눈으로

숙명의 인재가 거듭납니다
숙명이 다시 태어납니다

숙명 블루리본 프로젝트란

숙명 특화 전략(BLUE)과 대학 역량강화 전략(RIBBON)을 기반으로 인문적 소양, 창의적 전문지식, 글로벌 리더십 및 이타적 열정을 갖춘 생각하는 힘을 가진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며, '민족적 긍지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적 리더십 대학'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숙명 블루리본 실천전략



“ 숙명 네트워크와 토론수업의 힘으로
2000:1에 가까웠던 아나운서 관문을 통과했어요.

숙명에서만 만날 수 있는 멘토프로그램,
숙명토론대회 금상 경력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어요.
끌어주고 받쳐주는 선배들과의 끈끈한 인맥이
가능하게 했던 아나운서의 꿈,
이제는 제가 후배들의 꿈을 이끌어 줄 거예요 ”



MBC 아나운서
정보방송학 전공 2007년 졸업
배현진

“ 전공 선택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학교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



인문학부 09학번
선정연



실무역량 강화 : 숙명여대는 창의적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현장과 필드에서의 유용한 지식 습득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숙명 멘토프로그램 & 토론식 수업 : 전문 분야에서 활동 중인 선배와 후배의 네트워크를 통한 멘토 시스템과 토론식 리더십 교육은 숙명의 오랜 전통입니다.



교수학습센터 : 교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수법 연구와 세계적 석학들의 강의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질 높은 강의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 한국을 배우는 즐거움에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보람까지
숙명에서의 경험은 특별합니다 ”

TESOL 대학원 전임강사
Nevin Niddy

Tesol 대학원 & 르 꼬르동 블루 Hospitality MBA : 국내 최고의
국제영어교사 양성 프로그램인 테솔(TESOL) 대학원, 국내 최초의
서비스 외식 산업 전문 대학원인 '르 꼬르동 블루 Hospitality MBA'
등 세계적 교육기관을 유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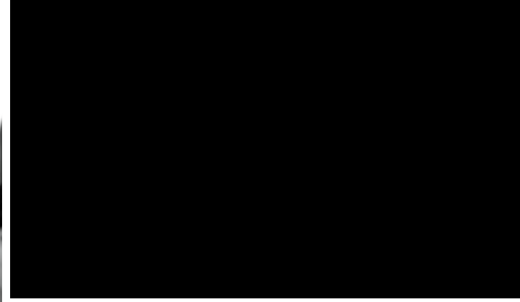
“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마이크 앞에서 다시 확인했어요

숙명에서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이
바로 사회에서 필요한 나만의 경쟁력이 되었어요.
졸업을 하고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일과 부딪혀 보면
우리 숙명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배웠던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매 순간 실감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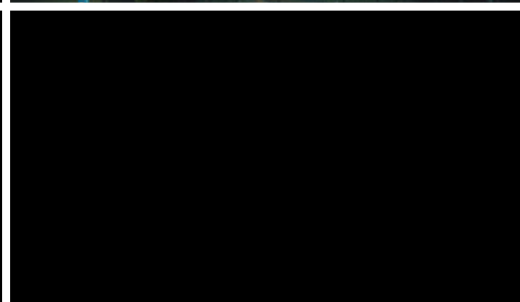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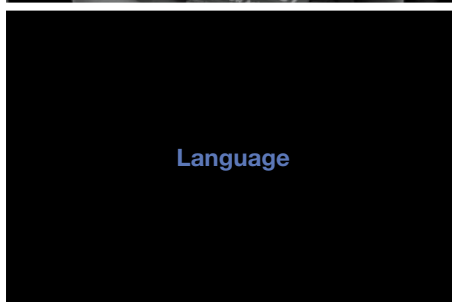
프리랜서 방송인
정치외교학 전공 1988년 졸업
이금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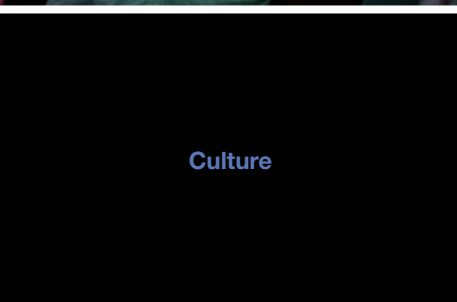
Liter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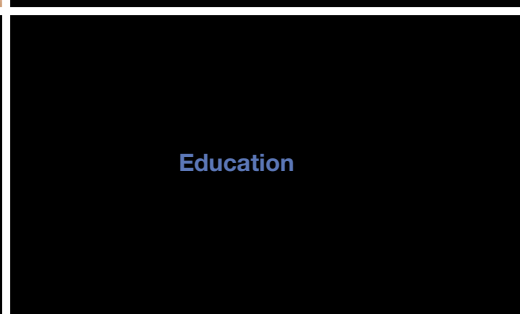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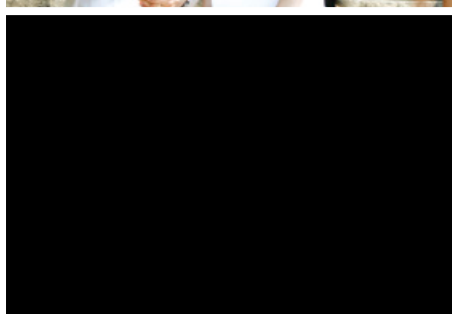
Language



Culture



Education



한국어문학부
역사문화학과
프랑스언어 · 문화학과
중어중문학부
독일언어 · 문화학과
일본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화관광학전공
르꼬르동블루의식경영전공
교육학부

문과대학

COLLEGE OF LIBERAL ARTS

한국어문 학부

DIVISION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한국어문학부는 태어난 지 63년이 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학부입니다. 본 학부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관한 주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를 수준 높게 구사하며 국문학을 깊이 향유하고 창조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이고 세련된 언어 사용 능력과 문학적 감수성을 기를으로써, 국제화 ·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실용적 전문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문화콘텐츠 시대를 이끄는 현장에는 본 학부 졸업생이 아주 많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310 • <http://korean.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한국의 언어와 문학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관련 과목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합니다. 세부전공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해 배우는 국제한국어교육전공, 문화콘텐츠 생산에 필요한 상상력을 계발하는 미디어문예창작전공 등이 있어서, 관련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어 교사가 되기 위한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관련 과목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 전공 특별 활동은?

학생회 안의 동아리로 소설학회, 시학회, 사회과학연구회, 연극학회 등이 있어 다양한 소양을 쌓고 친목을 도모합니다. 매년 4월에 교수와 학생이 함께 3일 동안 학술 기행을 합니다. 시화전, 창작 연극제, 청파백일장, 시와 산문의 밤 등과 각종 특강에 참여합니다. 잡지 『청파문학』을 발간하여 한 해 활동의 성과를 종합합니다.

● 내가 졸업하면?

관련 과정을 이수하면 중등학교 국어교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수, 강사, 연구원 등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등단하여 시인, 소설가, 평론가, 드라마 작가 등이 되기도 합니다. 프로듀서, 아나운서, 기자, 스크립터 등으로 언론계와 방송계에서 일하거나, 출판인, 교열가, 기고가 등으로 활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카피라이터, 문화산업 관련 종사자 같은 다양한 분야 진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시인 허영자, 신달자, 소설가 이선, 은희경 등이 한국어문학부 출신입니다. 아나운서 박찬숙, 가애란 등과 출판인 형난옥(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장)도 본 학부가 자랑하는 졸업생입니다.

장학금제도 : 한국어문학부 동문회 '청매회'가 지급하는 청매회 장학금을 비롯한 다양한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역사문화학과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 유럽 · 아메리카 등 동 · 서양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합니다. 전공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크게 한국사 · 동양사 · 서양사의 교과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교육목표는 세부 전공에 대한 체계적 학습과 연구를 통해,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역사적 사고방식과 지식을 습득하고 학문에 대한 응용력을 길러 올바른 역사의식과 역사관을 정립한 학생들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 · 서양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21세기의 다문화 · 다변화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여성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361 • <http://history.sookmyung.ac.kr>

역사문화 학과

DEPARTMENT OF
HISTORY & CULTURE

우리 학과는 세계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다문화 · 다변화 사회 속에서 21세기를 이끌어 갈 역사와 문화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다음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한국고대사회와국가, 고려시대의정치와사회, 조선시대정치사, 한국여성생활사, 한국역사문화기행, 해방이후의한국역사, 한국사 지금의 세계, 한국인의 사상과 예술, 중국역사고전속의 리더십, 문벌귀족과수당제국, 근대중국의개혁과혁명, 격동의중국현대사, 중국역사고전읽기, 중국사상, 중국정신, 중국역사문화 탐구, 인터넷과 서양사, 미국과히스패닉세계, 프랑스사와EU문화, 유럽통합의 현재와미래 등.

우리 학과에서는 답사부와 학술부를 포함한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매년 일일답사와 춘계 · 추계 정기답사 · 중국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답사사진전 · 역문인의 밤 · 학술발표회 · 졸업생간담회 · 전시회탐방 등 여러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효과를 높이고 학업을 성장시키고자 지도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학과는 동 · 서양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전공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전공을 이수하여 졸업한 선배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여성으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계, 언론 · 방송계, 역사문화콘텐츠 개발과 제작, 역사전문 스크립터, 학예연구사, 문화예술기획자, CEO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교사와 교수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기업 대표 · 아나운서 · 학예연구사를 비롯해 문화콘텐츠제작자 · 공무원 · 출판인 · 언론방송인 등 여러 분야에 진출해 활동하며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장학금제도 : 청사회 장학금 · 김자은 장학금 · 역사문화학전공 장학금 등 여러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전공 특별 활동은?

내가 졸업하면?

선배들의 선택은!

프랑스언어· 문화학과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 CULTURE

UN, IOC, FIFA 등과 같은 주요 국제기구에서 영어에 이어 공용어로 널리 쓰이는 프랑스어의 습득을 목표로 하며, 프랑스의 언어, 문학, 문화에 대한 학습을 통해 프랑스와 프랑스어권 국가에 대한 지식을 갖추며 이를 새로운 가치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원어 강의의 개설과 자매결연을 맺은 프랑스 대학에 교환학생을 적극 파견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고 창의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프랑스의 인문 소양을 습득하여 글로벌 경쟁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미래 지향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329 • <http://french.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학과는 프랑스어 영역, 문학 영역, 문화 영역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랑스어 영역에는 프랑스어 문법을 비롯하여 듣기와 말하기, 프랑스어 회화, DELF, 프랑스어 통번역 입문 등이 있고 문학 영역에는 프랑스 문학사를 비롯하여 소설세계, 동화 읽기, 문학과 미술, 사상의 이해 등이 있으며 문화영역에는 프랑스 문화정책, 언어와 문화, 문화 축제와 공연, 계몽주의 문화 등과 같은 여러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교과목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보편적이고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인문학적 사고로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 전공 특별 활동은?

5월에는 교내 전교생을 대상으로 상송대회 개최, 2학기에는 프랑스어 원어 연극 공연과 시와 상송의 밤을 격년으로 무대에 올립니다. 또한 프랑스의 고급 문화를 접하기 위한 기회로 11월 셋째 목요일에 이루어지는 햇포도주 보졸레 누보의 출시를 기하여 프랑스 포도주의 시음과 함께 프랑스 치즈, 바게트 빵 등 프랑스 고유의 음식을 맛보는 문화 축제를 개최합니다.

● 내가 졸업하면?

졸업 이후의 취업 진로는 전문 통번역사, 프랑스어권 국가의 대사관, 화장품 회사와 같은 프랑스 관련 기업체, 항공사, 방송국, 은행, 출판업계, 문화 및 행사 기획 관련 업체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으며 현재에도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학교, 및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교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박남희(76) 뮤진트리 출판사 대표, 이근님(7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최미란(79) 분당 영덕역고 교감, 장인숙(84) 장안과학대학 교수, 안은주(85) 서울 명덕외고 교사, 신지수(99) 주한 프랑스 대사관, 이주영(00) 전문통번역사, 김건옥(01) 아시아나항공, 최윤미(03) CNN, 김다운(04) 매일경제, 이광은(08) 클라랑스 코스메틱.

장학금제도 : 학과 동문회가 지급하는 날빛회 장학금을 비롯하여 여러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중어중문학부는 1972년 중어중문학과로 출발하여 지난 40년동안, 훌륭한 중국어 능력과 실무적 역량을 겸비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여성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의 학생들은 중국의 역사 · 문화 · 사회 · 경제 등 중국에 관한 충실한 강의와 중국어 원어연극 · 학술 심포지엄 · 그룹별 연구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실력을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중국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중국문화기행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북경대학을 포함한 중국과 대만의 30여개 명문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교환학생과 학술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어중문
학부DIVISION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335 • <http://chinese.sookmyung.ac.kr/>

중어중문학부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문학적 사고능력을 지니고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시각을 가진 실천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중국어학 · 중국문학 · 중국어통번역 세 필드를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1) 중국어학: 중국어학의 이해, 중국의 언어와 생활, 실용중국어어법, 중국문자의 이해 등 2) 중국문학: 중국현대시 산책, 중국고전 베스트 드라마 읽기, 중국소설문학의 세계, 중국명시 감상 등 3) 중국어통번역: 중국어 번역 특강, 중국어 통역 특강 등 심도 있는 교과목들을 통해, 학생들은 전문적인 중국어 능력과 더불어 중국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력을 갖게 됩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 학부 내 동아리로 '기획홍보학회'(학회지 '애향' 발행), '원어연극학회'(원어연극), '학술문화학회'(학술제준비와 중국어관련 스터디) 등 여러 활동이 있습니다. 중국 단기연수 프로그램은 매년 여름방학기간 중에 진행되며 중국의 자매학교에서 전공학점을 취득합니다.

전공 특별 활동은?

현재 중국과의 교류가 점점 확대되어 중어중문학과 졸업생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배들이 기업체, 산업체, 외국인회사, 외국은행, 외교관, 번역작가, 동시통역 등 중국어 능력이 활용되는 무대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자 · 방송작가 · 아나운서 분야의 방송계나, 교수나 교사직을 수행하는 교육계에서 활동하는 선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졸업하면?

우리 학부의 선배님들은 현재 통번역, 방송문화, 중국어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아나운서 윤현진(97학번)을 비롯해 공공기관 · 기업체에 양진영(97 KOTRA), 윤정희(01 삼성전자), 박지원(00 문화관광부), 유민희(04 국민은행), 김선경(88 교육방송PD), 박하정(79 전문번역가)등의 선배, 교사 · 교수직에는 김영희(72 서울한성화교종교), 진경화(80 장곡교), 유병례(73 성신여대), 권영애(78 건양대), 장정해(80 한신대) 등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선배들의 선택은!

장학금제도 : 중어중문학부 동문회 '중문회'가 지급하는 중문회 장학금을 비롯해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독일언어· 문화학과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 CULTURE

국제간 교류가 중요해진 오늘날, 우리나라와 독일어권 국가들의 정치·경제·문화 교류에 일익을 담당할 전문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독일 언어·문화학전공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독일어권의 언어와 문화에 관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국제화시대에 일할 수 있는 여성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구사능력과 언어·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독일어권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342 • <http://german.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먼저, 독일 언어와 문화의 학습을 위해 독일의 문학, 역사, 예술과 지역학을 탐구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능력과 더불어, 다양한 정보를 분석·처리하는 컴퓨터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아동·청소년 문화기획 2)외교 통상 3)언론·방송·출판 4)통·번역과 학술문화교류 5)독일어 교육의 다섯 가지 분야의 진로를 고려하여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전공 특별 활동은?

특별 활동으로서 '문화기획부', '원어연구부', '학술부'가 있습니다. 동문멘토 프로그램과 스터디 그룹, 취업준비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제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는 자매대학(Konstanz대학, Bamberg대학)에서 제공하는 하계연수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탐방단을 조직하여 독일 방문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 내가 졸업하면?

독일 언어·문화학 전공을 통해 습득한 언어능력과 전공지식을 토대로 EU에서 독일어권 국가들과의 교류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교, 출판, 교육, 방송, 아동·청소년 문화기획 분야에서 활동하는 길이 있습니다.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독일어2급 정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언론·방송·출판·문화기획·통상·금융·공기업 등의 분야에서도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계화(주 네팔대사관 참사관, 80), 이은숙(교보문고 강남지점장, 83), 양혜숙(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97), 장유성(공인회계사, 01), 이민경(국민은행, 07), 이유진(신한은행, 07), 고은비(대한항공 사무직, 08), 조달희(케이퍼시픽 승무원, 09), 우아미(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09), 박지영(파이낸셜타임즈 기자, 08), 오현주(한국코맥, 10), 김미소(바이엘코리아, 10), 김이슬(베링거인겔하임, 10), 박소현(PX비서, 09), 김지영(호텔신라 호텔리어, 10), 손지예(삼성전자, 11) 등.

장학금제도 : 매년 동문회 장학금인 해오름회 장학금과故김재민교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일본학과

21세기 글로벌화 되는 시대에 한일관계는 전에 없이 개방적이고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1998년에 설립된 일본학과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부응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나라입니다. 오늘날도 한일 간에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도 더욱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학과에서는 이런 문제들과 양국의 긍정적인 미래 관계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여성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885 • <http://japan.sookmyung.ac.kr/>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우리 일본학과와의 선생님들은 국내 유수의 일본학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력을 기울이며 일본학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과 지도를 지향하시고 계십니다. 교육 내용은 일본의 역사·경제·문학·정치·사상·문화 등 일본학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룹니다. 물론 이와 같이 다양한 일본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어학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일본어학을 전공하시는 3명의 선생님들이 작문·회화·문법·독해·청취 등 기초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심화된 교과내용을 교육하십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

일본학과와 동아리 활동으로 원어연극학회 '아이테르'와 '일본어 컴퓨터클럽'(SJCC)이 있습니다. '아이테르'는 매년 1회 가을에 원어연극을 공연합니다. 'SJCC'는 매주 컴퓨터실습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컴퓨터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기획중인 전공 소모임으로 '일본문화콘텐츠연구회', '일본 비즈니스 연구회', '일본문학연구회' 등이 있습니다. 매년 겨울방학에 9박 10일간 실시하는 일본문화연수도 일본학과와 아주 중요한 특별 활동입니다.

전공 특별 활동은? ●

일본학과 졸업 후의 진로는 전공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일본 관련 산업체나 한국에 주재 중인 일본 산업체에서 일하거나, 혹은 통번역사,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일본어 강사로 일하는 등의 길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교직과목이 개설되어 일본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졸업하면? ●

많은 선배들이 일본어와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LG·삼성·대한항공·아시아나 등의 대기업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졸업생 취업포포를 보면, 국내 금융기관 18.5%, 국내 제조 및 서비스 업체 16.7%, 학원 강사 14.8%, 대학원이나 유학 11.1%, 일본기업 취업 9.3%, 문화예술 분야 7.4%, 공무원 7.4%, 외국기업 취업 5.6%, 기타 9.2%로 나타났습니다.

선배들의 선택은! ●

문헌정보 학과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지식정보는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형태를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식정보는 과거의 것이라 하더라도 오늘날까지 내려와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헌정보학과는 이런 지식정보가 생산되거나 형태를 갖추고, 유통·이동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헌정보학의 역사·이론을 공부하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게 하여, 21세기 정보사회 각 분야에 기여할 여성 정보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373 • <http://lis.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문헌정보학과는 '정보와 이용'이라는 두 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양쪽의 속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과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보의 측면에서는 인간의 지식체계가 정보를 조직하는 방법, 멀티미디어 매체를 포함한 모든 기록 매체의 속성과 매체가 발달하는 과정, 지식이 생산·유통되는 과정, 정보의 집합체인 각종 도서관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다음, 이용의 측면에서는 인터넷 정보원을 비롯한 각종 정보원에 접근하는 방법, 효율적인 정보검색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방법, 정보검색기법과 전자출판 등을 공부합니다.

● 전공 특별 활동은?

문헌정보학과에서는 3월에 개강총회를 열어 학생들의 화합을 도모합니다. 11월에는 학생들의 주제 발표와 선배 초청 강연회를 중심으로 전공학술제를 개최합니다. 학생회를 주축으로 학술탐방도 기획·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을 하게 만들고 다른 시각으로 전공지식을 심화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내가 졸업하면?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국가공인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국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의 전문 사서, 각급 학교의 사서교사로 활동합니다. 연구소·대기업·컨설팅회사·언론방송사 등의 정보자료실, 정보서비스 회사, 출판사나 대형서점 등의 지식유통업체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여러 선배들이 전공을 살리며 우리의 정보 환경 발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순영(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지식정보센터 소장), 박옥주(국회도서관 사서서기관), 서경주(중앙구립정보도서관장), 강은희(송문고등학교 사서교사) 등의 선배들이 관련 분야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제도 : 동문들의 기부로 국회도서관 동문장학금, 문헌정보학과 동문장학금, 한순정 장학금 등을 지급하여 재학생의 학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학전공은 2000년에 국내 유일의 학과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학전공에서는 급변하는 21세기 사회에서 요구하는 단순한 한 분야의 전문가를 넘어 자기주도적 융합형 인재인 “제너럴 스페셜리스트(General Specialist)”를 추구합니다. 문화적 소양을 바탕으로 유연하며 적극적인 서비스 마인드와 창의적 전문지식을 갖추는 동시에, 미래사회의 문화관광 분야에서 국제적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합니다. 나아가, 이타적 열정으로 자신의 분야를 넘어 사회전반의 문화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969 • <http://uct.sookmyung.ac.kr/>

문화관광학 전공

CULTURE &
TOURISM MAJOR

우리 전공에서는 다양한 현장중심의 교육과 더불어,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적 이론과 현장실습을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진행합니다. 전공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학생들에게 생동감 있는 교육을 제공할 뿐 아니라, 관련업계의 전반적 분위기를 인식하게 하고 관심분야에 동기를 갖도록, 박물관 · 미술관 · 문화재단 · 항공사 · 호텔 등 문화관광 업체에서 산학실습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높은 인재가 되도록, 영어를 포함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일본어 · 중국어 · 프랑스어 등 제2외국어와 제3외국어의 구사능력을 졸업조건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

문화관광학전공은 여러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트레이닝(Leadership Training)’은 문화 및 관광분야에 대한 특정한 주제아래,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분야의 리더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학술제는 문화관광 관련 주제를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한 행사로, 외부전문가 · 동문멘토 · 재학생 · 교수님들과 함께 특강과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는 우리 전공의 주요 행사입니다. 자신의 관심분야에 따라 평생 멘토가 되는 지도교수님과의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전공 특별 활동은? ●

졸업 이후에는 관련 분야의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관광산업기획(국제회의, 컨설팅, 여행상품 기획 등), 관광산업시설(호텔, 리조트, 외식업체) 등의 진로가 있고, 공공기관(한국관광공사, 국영기업체)으로 진출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외에 문화예술기획(축제, 문화이벤트), 문화예술시설(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콘텐츠(음반 및 영상산업 등)의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내가 졸업하면? ●

우리 전공의 선배들은 주로 호텔, 항공사, 여행사와 같은 관광업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인터컴 등의 문화 관련시설에서 근무하는 선배들이 있고, 유니버설 뮤직이나 아트노우 등의 문화기획업체에서 일하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선배들의 선택은! ●

르꼬르동블루 외식경영전공

LE CORDON BLEU
HOSPITALITY
MANAGEMENT
MAJOR

2007년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에 신설된 르 꼬르동 블루(Le Cordon Bleu) 외식경영전공은 세계 최고의 호스피탈리티 산업 브랜드인 르 꼬르동 블루와의 협약에 의해 신설된 학부 교육과정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노하우로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고의 외식경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르 꼬르동 블루 외식경영전공 과정을 수료하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Le Cordon Bleu Hospitality BA Certificate와 숙명여자대학교 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학과 동시에 Le Cordon Bleu Global Community에 소속되며, 세계 각지에서 LCB BA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2077. 7335 • <http://lcb.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르 꼬르동 블루 외식경영전공의 강의는 이론과 실습이 80:20의 비율로 진행됩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원어민강의가 다수 개설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원어 교재를 사용합니다. 강의의 진행은 주로 PBL(Problem Based Learning)형식으로, 팀 프로젝트 수행, 프레젠테이션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UBL(Ubiquitous Based Learning)강의도 진행하여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교수님이나 학우들과 활발한 학습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습수업은 르 꼬르동 블루와의 협약으로 프랑스에서 파견된 교수진의 강의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마케팅, 회계, 재무, 전략, 인사관리 등의 경영 기본분야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특화된 현대산업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합니다.

● 전공 특별 활동은?

르 꼬르동 블루 외식경영전공의 재학생들은 전공 수업 외에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외식 산업과 호스피탈리티 산업, 그리고 나아가 서비스산업 문화를 창조할 리더십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봄 학기 초 실시되는 'Leadership Training(LT)'은 외식산업경영에 들어가기에 앞서 산업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체험해 보는 시간이며, 'LCB외식경영 인턴십 설명회'는 로드맵 제시와 다양한 사례 발표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가치 있는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호텔 투어, 서울시티클럽 · CJ 푸드빌 방문 등 다양한 호스피탈리티 현장탐방을 통해 영업장 투어 및 조리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내가 졸업하면?

르 꼬르동 블루 외식경영전공을 졸업한 학생들은 서비스 전문가, 컨설턴트 등 외식산업과 호스피탈리티 서비스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역량을 가진 핵심 인재로 활동하게 됩니다. 특히 외식관련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 외식사업기획 · 운영(대기업 외식과 컨설팅, 프랜차이즈 경영, 호텔 F&B, 레스토랑 경영, 케이터링 사업), 외식경영 컨설턴트(외식업 컨설턴트, 메뉴 개발과 기획), 외식사업 시설(레스토랑 시설 · 설비 기획) 분야 등으로 진출할 다양한 기회가 열립니다. 또한 경영학, 회계학, 소비자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과의 융 · 복합을 통해 외식경영 분야 안에서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은 교육 현상에 관해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의 본질 · 법칙 · 방법 등 교육에 관한 여러 현상들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는 1955년 창설된 이래, 수많은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한국 교육계와 교육학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우리 교육학부는 전인적인 교양인과 문화인 육성, 인간 · 사회 ·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전문 지식 습득, 여성 교육전문가로서의 실무능력 배양,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와 인류에 봉사할 태도와 자질을 육성한다는 교육이념 아래, 사회에 기여하는 여성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학부

DIVISION OF
EDUCATION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349, 9355 • <http://edu.sookmyung.ac.kr/>

교육학부는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이론 습득과 교육 현장의 실제 학습을 통해, 이해력 · 창의력 · 경쟁력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학 학문적 전문성 · 특성성 · 다양성을 기초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목으로 교육철학, 교육과정학, 교육심리학, 교육통계및연구법, 교육행정학,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학교상담학 등이 있습니다. 현장체험 위주의 학습도 지향하여, 교육 실습 · 교육 현장 답사 · 사회 교육 실습을 실천하여 학생들이 몸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교육학부는 매년 학과 학회지 '교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기초 교양분야와 전공 입문 서적 세미나 및 매년 10월에는 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매년 1박2일의 교육현장 답사와 교육인의 밤을 진행하며, 연구 모임인 '열린터'에서는 교육 현실에 대해 토론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연극 동아리 'Socio'와 '사이코 드라마'는 매해 공연을 통해 다른 학우와 나쁜 관계를 맺고 발전된 교육적 안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전공 특별 활동은?

전공 이수자 전원에게 '교육학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부여되고, 복수전공을 이수하면 해당과목 교사자격증도 부여됩니다. 선배들은 대부분 대학 교수, 중 · 고교 교사, 카운슬러, 각종 사회단체나 교육관련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진출해 있습니다. 교원 임용시험과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일정 과목 이수 후 사회교육 전문요원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졸업하면?

박영신(인하대 교수), 진미경(남서울대 교수), 박효정(한국교육개발원 연구실장), 박애선(서울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 박숙희(협성대 교수), 이수영(방이중 교사), 김경민(인왕중 교사), 나연선(한국금융연수원), 정시은(LG), 황세영(이랜드월드), 최혜원(교원그룹), 윤지은(한국장학재단), 고희원(비유와상징), 박진영(한국능률협회 컨설팅), 김진아(주)이투스, 양규희(SK텔레콤) 등

선배들의 선택은!

장학금제도 : 동문 석은목(본명:석경숙) 선배님의 '석경숙 동문장학금'과 동문회인 청라회에서 지급하는 '청라회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Principl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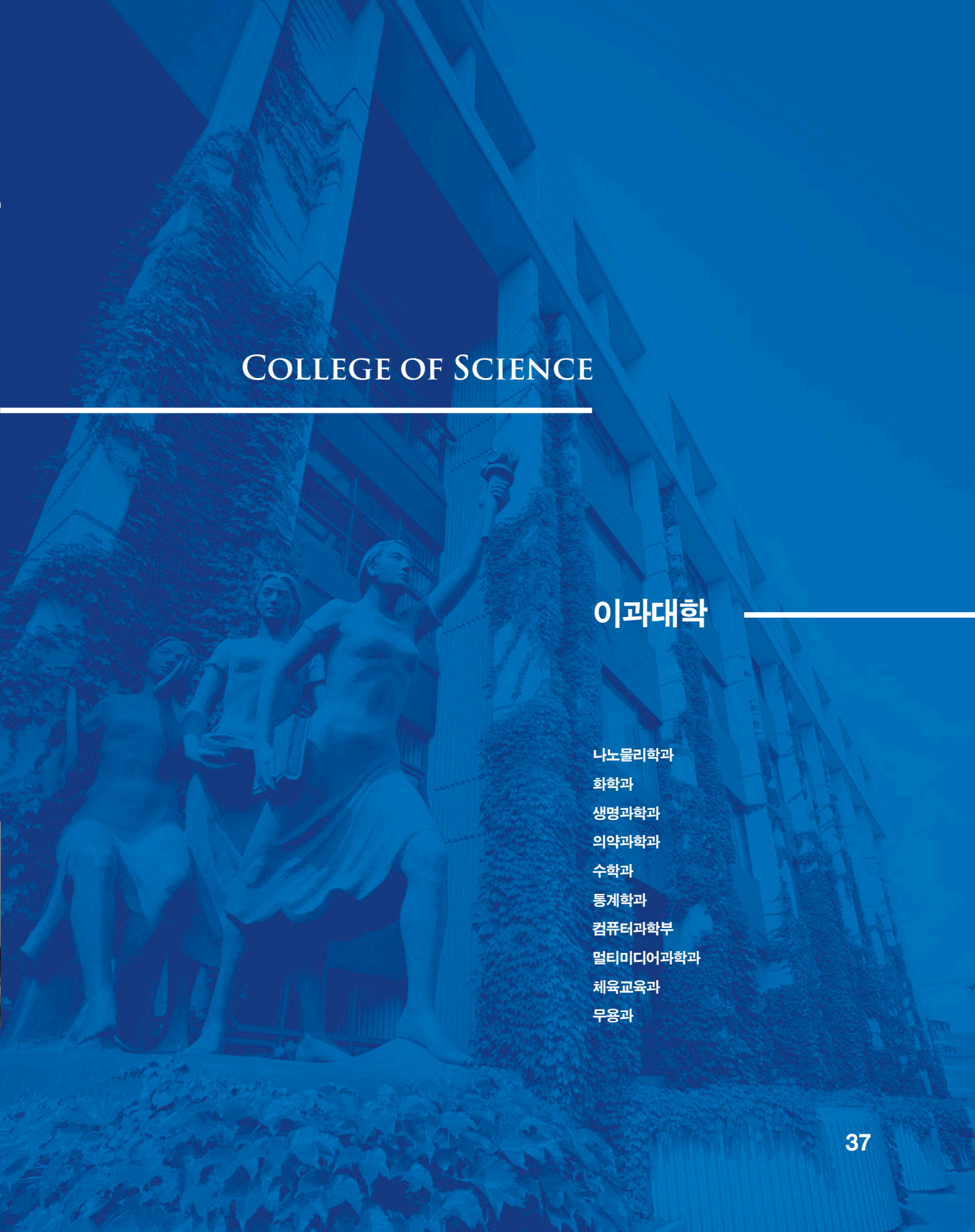


Theory



Training





COLLEGE OF SCIENCE

이과대학

나노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의약과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컴퓨터과학부
멀티미디어과학과
체육교육과
무용과

나노 물리학과

DEPARTMENT OF
NANO PHYSICS

나노과학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로 축소했을 때 나타나는 물리·화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원자 수준에서 물질을 제어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1 나노미터는 10^{-9} 미터로 원자 5개 정도가 한 줄로 늘어설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는 인류가 아직 접해 보지 못한 신기능 소재와 극미세 소자의 창조를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측면에서 인류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학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노물리학과에서는 나노과학의 기본 원리 그리고 이를 화학·생물학·재료과학·전자공학 등에 응용할 지식을 배우고 실습 훈련을 합니다. 이런 구체적이고도 실험적인 과정을 통해 나노과학 분야의 연구·기술 인력이 배출되게 됩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407 • <http://physics.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나노물리학과에서는 교과를 기초·심화·응용의 세 단계로 분류하고, 이들 교과를 순차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나노과학 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습니다. 기초과목은 나노과학 이해를 위한 물리학적 기초 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고(전자기학, 양자물리 등), 심화과목은 기초 지식을 나노과학에 적용하기 위한 도구적 지식들을 습득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고체물리, 광학 등). 최종 단계인 응용과목은 나노과학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나노과학, 신소재과학, 반도체소재와 소자 등).

● 전공 특별 활동은?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기초 능력 배양에 치중되어, 실제 연구·생산 현장과는 다소 격차가 있습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현장의 나노 과학·기술 인력들을 초빙하여 실제 진행 중인 다양한 나노과학 연구 주제를 접할 특별강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각 교수님들의 연구에 참여하며 다양한 연구 현장의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내가 졸업하면?

나노물리학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융합전공으로, 다양한 분야에 진출 기회가 있습니다. 학부 전공자의 경우 기업체, 교사, 공무원, 대학원 진학의 길이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 경험을 쌓으면, 연구 개발과 관련된 전문직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자산업 강국으로, 대학원 진학생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졸업생 전원이 관련전자산업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선배들이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경선(연세대 교수), 손미연(삼성전자), 장현숙(특허청), 하기정(IBM), 이추욱(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장학금제도 : 매 학기,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동문회장님께서 수여하시는 동문회 장학금과, 물리학과 전(前) 교수님들께서 주시는 ① 박애주 교수님 장학금 ② 김이청 교수님 장학금 ③ 오성담 교수님 장학금 ④ 김두희 교수님 장학금이 있습니다.

화학과

과학 발전은 국가 경쟁력의 기반입니다. 그 토대에서 화학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초학문입니다. 화학이란 우리의 주위의 다양한 물질과 여러 형태의 에너지에 관해 올바른 지식을 얻고, 이를 토대로 물질과 에너지를 효율적이고도 윤리적으로 활용하려는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학문에 이론적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차츰 화학이 자원이나 환경문제 같은 사회의 전반적이고도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귀결되는 학문이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용성이 강한 학문이자 사회참여학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화학과의 학생들은 자부심을 갖고 학문탐구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413 • <http://chem.sookmyung.ac.kr/>

DEPARTMENT OF
CHEMISTRY

신입생 때는 우선 화학의 기초과목으로 '일반화학'을 두 학기에 걸쳐 수강하며 화학의 전반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동시에, 과학도에게 요구되는 기본 소양의 증진을 위해, 일반물리학과 일반생물학도 공부합니다. 다음에는 화학의 세부 분야인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네 영역과 생화학에 관련한 전공과목들을 수강하고, 각 전공분야에 연계된 실험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실용적 측면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 다른 학문과의 교류 연구와 교육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 화학 이외의 다른 학문 영역과의 연계 활동이 크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 학과는 기초지식을 어느 정도 쌓은 학생들로 하여금 실용적 화학지식에 접할 수 있도록, 평균 매주 1회에 걸쳐 외부 화학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전문인으로서 R&D 연구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부생 연구인턴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학과생들은 각 교수의 연구실에 소속되고 연구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 특별 활동은?

화학은 실용성이 강한 학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기회는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기업의 생산라인 · 영업부서 · 연구소 · 무역 · 제품관리 · 사후관리부서 등 다양한 화학관련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고, 환경전문가 · 분석전문가 · 화학 관련 변호사 · 전문가 등 여러 영역의 전문 직종으로 진출하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보다 높은 지식을 쌓기 위해 화학 및 관련분야의 석 · 박사 과정이나 의 · 치의학전 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졸업하면?

졸업 이후에 사회로 나간 선배들은 본교를 포함하는 국내 및 외국의 유명대학원에서 의 학위과정을 마치고 국공립 및 민간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삼성 · LG 등 대기업의 연구직, 영업직, 관리직에서 일하거나, 교직이나 교육대학원 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일선학교의 교사로 활동합니다. 이외에도 특수 전문 직종, 공무원, 각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선택은!

생명 과학과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

고도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국가경쟁력으로써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강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 중에서도 생명과학은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집중육성 분야의 하나입니다. 우리 생명과학과는 이러한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공과 교양을 균등하게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목의 기본원리를 교육하고, 기본원리를 발견하는 실험과정과 기술을 이해시킴으로써 졸업 후에 생물과학 첨단 분야나 융합과학기술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419 • <http://sookmyung.ac.kr/~bio>

● 무엇을 배울까요?

처음에는 일반생물학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2,3학년에 생명과학의 이해에 핵심이 되는 세포생물학, 생화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을 배우고, 이후에는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더 깊이 배우기 위하여 면역학, 신경학, 식물생리학, 식물발생학, 암생물학, 현대생물학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외에 의과학 전문대학원 예비과정 연계전공과 실험실인턴제를 통하여 석,박사 학위를 받아 교수나 국가연구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며, 또한 전문대학원 진학을 포함한 다양한 전공 관련 취업에 적합하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전공 특별 활동은?

우리 학과의 가장 대표적인 특별 활동으로 5월 '학술제'와 11월 '생명인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학술제'는 생명과학과 학생들이 최근 각광받는 분야를 주제로 교수님들과 조별로 모여서 준비한 다음 5월에 발표회를 갖는 행사이고, 11월 '생명인의 밤'은 졸업하신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교수님, 재학생, 선후배 간 친목을 도모하며 한 해를 정리하는 모임입니다.

● 내가 졸업하면?

우리 학과의 많은 선배들이 생명과학, 의생명공학, 의약학 관련업, 농생명과학, 환경 관련 산업체나 연구소 등으로 진출해 있습니다.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과학 관련 중·고교교사로 근무할 수 있고, 대학원에 진학해 학문연구를 하면 국립·기업 연구소, 병원, 국립보건원, 농업과학 기술원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의치학·한의학·약학 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 의사나 약사가 되는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여러 선배님들이 우리나라의 과학분야나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소개하면, CJ, 환경바이오연구소장, 북경영사, 환경부 공무원, 국회에 산정책처, 국립보건연구원, 셀트리온,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이 있습니다.

장학금제도 : 생명과학 동문장학금을 포함하여 각종 전공관련 장학금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명과학, 의과학, 약학 등 기초과학 분야의 지식과 응용과학 분야의 신기술을 접목한 교육 및 첨단연구를 수행합니다. 의·치학전문대학원이나 약학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 혹은 의과학 및 의공학, 생명공학, 보건 분야에서 전문연구인이 되길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과입니다.

의약 과학과

2011학년도 신설전공

DEPARTMENT OF
MEDICAL &
PHARMACEUTICAL
SCIENCE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2077. 7620 • <http://scms.sookmyung.ac.kr/medpharm>

의약과학과에서는 관련 분야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원, 혹은 전문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의약과학 전반에 관련한 기초과학지식, 응용과학지식, 방법론, 소양 등을 강의, 실험실습 및 연구참여 등을 통하여 배웁니다. 교과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 화학, 수학, 생물 등 기초과학의 이론 및 실험, 생물통계학, 의약과학의 이해, 생유기화학, 유전체학, 생화학, 항체공학, 분자세포생물리학, 약물유전공학, 종양학, 분자염증약리학, 의약미생물학, 내분비학, 약리학, 신약개발학, 분자독성학, 의료정보학, 시스템생물학, 합성생물학, 줄기세포공학 등의 전공 과목.

무엇을 배울까요?

의약과학 및 의공학 관련 연구소 견학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의학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관련 지식의 축적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첨단 분야의 특성상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맞추어 다양한 세부분야에 대하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참여시킴으로써 최신 지식의 빠른 전달과 독립성 및 팀워크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공 특별 활동은?

의약과학과에서는 교내외 교수, 전문가, CEO를 초청해 정기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외국 명문대학과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제 프로그램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학과의 특성에 맞추어 전문대학원 진학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국내외 관련 기업 연수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졸업 이전에 약학대학으로, 졸업 이후에는 의·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길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소나 기업체 연구소,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의약과학 또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원이나 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졸업후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 의과학, 약학, 생명공학 및 보건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여 학계나 관련 분야 연구소에서 독립적인 연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졸업하면?

수학과

수학은 일상생활이나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규칙과 패턴을 찾아서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수학은 대상을 인식하고 본질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어 원리를 밝히고 합리성을 바탕으로 구조를 체계화함으로써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은 물론이고 인문과학의 재구성과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과학의 언어를 넘어서 모든 학문의 언어로 폭넓게 활용되어 인간과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DEPARTMENT OF
MATHEMATICS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425 • <http://math.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수학은 크게 순수수학과 응용수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수수학은 대수학, 해석학, 위상수학, 기하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수학은 연산, 강제운동과 도형의 변화 그 외 성질을 일반화하여 형성한 구조를 연구하고 해석학은 극한 개념에 의하여 파생하는 다양한 근사구조를 연구합니다. 위상수학과 기하학은 도형의 위치와 형태에서 비롯하는 구조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응용수학인 암호학, 보험수학, 금융수학, 생물수학, 유체역학 등에서는 현실 생활에서 인식할 수 있는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전공 특별 활동은?

수학과에서는 '수학사랑'이라는 동아리를 주축으로 매년 수학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공에 대한 소양을 넓히기 위해 문제 풀이반을 운영합니다. 매년 2학기 중에는 졸업하신 선배들, 재학생들,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체성을 찾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수학인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 내가 졸업하면?

수학과를 졸업하면 수학자 · 교사 · 컴퓨터프로그래머 · 회계사 · 세무사 · 계리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금융관련 분야, 출판 분야와 유통 분야에도 취업하며 정보, 경제, 경영, 역학 분야 등의 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진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문인 수학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보다 광범위하게 건축가, 디자이너, 기획전문가 등 여러 가지 진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우리 학과의 선배들은 교육 분야는 물론 금융, 보험, 기업 연구소, 정부기관, 컴퓨터, 출판 분야 등 기본적으로 수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에 진출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제도 : 수학과 동문회 '청수회'에서는 재학생과 해외 대학원 진학생에게 동문장학금을 수여하고 있고, 일부 전공교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학과

정보지식화 요구에 따라 통계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통계학과는 이런 변화에 부응하고 여성통계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1988년에 설립했습니다. 통계학자가 목표로 하는 여성통계 전문기는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로 사용할 능력이 있는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관리할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여성 인재입니다. 이를 목표로 여러 교수들이 성의껏 학생들을 지도·편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접 응용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공동 작업에서도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437 • <http://stat.sookmyung.ac.kr/zbxe/>

DEPARTMENT OF
STATISTICS

통계학은 불확실성이 내포된 채 자연 및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통계적 모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추론한 다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다양한 이론과 분석 툴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매년 5월에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통계학과 선배를 초청해 취업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는 재학생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선후배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입니다. 또한 각종 취업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학교 측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도서 발간 활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공 특별 활동은?

졸업생들은 현재 통계청 등의 정부기관이나, 은행, 보험 등의 금융회사, 그리고 마케팅 조사회사와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졸업생도 있습니다. 특히, 보험계리사 시험에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최근 보험관련 금융 분야로 진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CRM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며 데이터 마이닝 관련 분야로도 활발하게 진출하는 중입니다.

내가 졸업하면?

초기에 선배들은 주로 국가고시나 주요 인증시험에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변리사,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등에 합격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보험, 신용카드사 등 금융관련 분야 진출이 많아졌습니다.

선배들의 선택은!

컴퓨터 과학부

DIVISION OF
COMPUTER SCIENCE

컴퓨터과학부는 컴퓨터 그 자체에 대한 연구, 이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습을 통해 컴퓨터가 응용되는 제 분야에 대한 탐구, 지식의 배양과 함께 교육능력을 키워줌으로써 단순한 기술인이 아닌 미래가 요구하는 정보사회를 선도할 인력 배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1982년에 전산학과란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1998년도에 정보과학부 내의 컴퓨터과학 전공으로 개편되었다가, 2011년에는 다시 컴퓨터과학부로 개편되었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431 • <http://csweb.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컴퓨터과학에서는 크게 기초이론과목과 응용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기초이론과목에서는 컴퓨터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시스템을 공부합니다(자료구조, 운영체제, 프로그래밍언어론, 알고리즘, 인공지능 등). 기초과목에서 쌓은 지식을 기반으로, 고급프로그래밍 같은 응용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프로그래밍개론/II, 컴퓨터프로그래밍,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웹시스템설계,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등). 우리 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교직근무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보컴퓨터교육론, 정보컴퓨터교수법, 논리및논술 등의 교직 이수과목을 공부합니다.

● 전공 특별 활동은?

학부에는 크게 세 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Solux'(Sookmyung Linux User Group)는 리눅스를 공부하는 순수 학술 동아리로, 1999년 결성된 이래로 리눅스 홍보와 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SISS'(Sookmyung Information Security Study)는 정보 보안 동아리이며, 네트워크 보안 · 시스템 보안 · 암호학 등을 공부합니다. 컴퓨터의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는 스터디 그룹 'Forza'도 있습니다.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여러분은 소중한 인간관계도 맺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공에서 배운 내용을 깊이 탐색하는 기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졸업하면?

졸업생은 대부분 다양한 소프트웨어 응용분야 직종으로 진출합니다. 삼성전자, 삼성 SDS, LG CNS, LG전자, SK Telecom 등의 IT 대기업, 시중 은행이나 공공기관의 전산 부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소프트웨어 컨설팅, 외국계기업의 컴퓨터 관련직, 전산교육 분야 등 다양한 사회 진출의 길이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사'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많은 선배와 동문들이 IT 분야의 다양한 직종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자로 헌신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굴지의 IT 대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지에서 IT 관련 업무나 연구에 종사하기도 하며, 공무원이나 특허정보원 연구원 등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과학 전공은 IT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한 미래 지향적인 최첨단 학문으로, 컴퓨터는 물론이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스마트 기기(iPhone, Android Phone, iPad, PDA, PMP)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연마하는 학문입니다. 첨단 모바일 콘텐츠 제작 기술을 가르칠 뿐 아니라, 멀티미디어(영상, 웹, 이미지, 게임, 오디오, 텍스트)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래밍하여 기획 · 관리 · 처리 · 전달하는 최첨단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기본 지식과 첨단 지식, 콘텐츠 설계 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멀티미디어 과학과

DEPARTMENT
OF MULTIMEDIA
SCIENCE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379 • <http://mmdept.sookmyung.ac.kr/>

멀티미디어과학과의 교육과정은 IT기술의 기본 핵심,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처리,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모바일 응용, 콘텐츠 기획 등의 과목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학년: 프로그래밍기초, 프로그래밍기초II, 멀티미디어이해 등

2학년: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사용자인터페이스설계, 모바일프로그래밍 등

3학년: XML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설계, 컴퓨터그래픽프로그래밍, 사운드프로그래밍 등

4학년: 지능형멀티미디어, 게임기획및프로그래밍, 인터넷방송응용, 졸업프로젝트 등

1) LG글로벌챌린저 등을 포함한 각종 공모전 준비반이 있어, 매년 다수의 교내의 공모전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선하여 개인과 학과,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있습니다. 2) 매년 봄에는 교수와 재학생 전원이 리더십캠프(LT)를 가고, 가을에는 졸업생들까지도 한 자리에 모여 '멀티인데이'로 친목을 다집니다. 3) 우리 학과의 '최강멀티' 풋살(실내 축구) 동아리 팀은 교내 최강으로, 많은 학생들이 선수나 응원단으로 참여합니다. 4) 웹운영팀은 학과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며, 웹진팀은 학과의 소식을 전하며 학과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최근 융합화 시대가 요구하는 타 학문과 협력적이며 통섭적인 미래의 IT 전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학과에서는 항상 차세대 IT 리더를 배출하고 있으며, 졸업 후 IT 기술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고루 퍼져 있습니다. 모바일 미디어, 그래픽 · 가상현실, 인터넷 · 웹 문서, 사운드 콘텐츠, 영상 · 뉴미디어, e-러닝 · 출판, 콘텐츠 기획 · 개발 등

최근 IT 기술과 스마트폰 열풍으로 관련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주요 기업(삼성, LG, SK, SKT, KT, NHN 등)의 연구원, 프로그래머, 기획업무, 콘텐츠제작 업무 등의 분야에서 일합니다. 또한, 유학을 가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전공 특별 활동은?

내가 졸업하면?

선배들의 선택은!

체육 교육과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우리 학과는 1962년도에 보건체육과로 신설되어 1968년도에 체육학과, 1974년도에 역사와 전통을 가진 체육교육과로 개편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체육은 현대인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필수불가결한 생활 영역이 되었습니다. 전문체육인 양성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선도할 여성으로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에 대한 소양과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체육교사를 육성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인류애를 생활 속에 구현할 전문인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간적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글로벌 스포츠 리더를 양성, 배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443 • <http://movement.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 체육교육과는 이론과 실기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체육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론 수업으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지식을 통해 체육이 인체, 인간심리,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운동 심리학, 운동역학, 스포츠 영양학, 스포츠마케팅, 스포츠행정경영, 스포츠 교육학 및 인적자원 개발, 한방운동 등을 공부합니다. 실기 수업으로는 다양한 스포츠(골프, 농구, 배드민턴, 배구, 육상, 테니스, 수영, 스키, 볼링)를 직접 경험 하게 됩니다. 또한, 교직, 전문 체육인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공 특별 활동은?

우리 체육교육과는 소프트볼, 배구, 배드민턴, 수영, 농구, 축구 동아리 등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해당 종목에서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각종 대회에서 입상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다양한 자격증(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 등)을 취득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체육교사를 꿈꾸는 학부생들을 위해 임용준비반도 마련해, 필기와 실기시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체육교사, 스포츠 관련 국내외 기구에서의 진출에도 전공 특별활동이 일조하고 있습니다.

● 내가 졸업하면?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추구함에 따라 즐거운 생활체육, 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에 발맞추어 정교사 2급, 생활체육지도자, 유아체육지도자 등 각종 체육 분야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보다 질 높은 삶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 지도자, 뉴 스포츠 지도자 등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 및 특별활동은 체육교사 · 국내외 체육단체로의 행정직 진출로 현실화 됩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중등학교의 체육교사로 활동하거나 혹은 체육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고, 레저스포츠 강사, 물리치료사, 유아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각종 체육협회 등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제도 : 체육교육과 동문회인 '건속회'에서 수여하는 학부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1982년에 설립된 무용과는 이론과 실기를 병합한 통합적 무용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문화예술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전문 무용인 양성에 주력합니다.

무용과

DEPARTMENT OF
DANCE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450 • <http://dance.sookmyung.ac.kr/>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의 전공 및 부전공 실기, 무용사, 예술론, 무용미학, 생활무용, 타악실기, 레파토리, 무용창작론, 무용작품분석, 창작실습, 인체기능학, 무대효과론, 무형 문화재 춤 분석, 캐릭터댄스, 바디컨디셔닝 등을 배웁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1. 실기 발표회를 통해 창작기회를 제공하고 무대 제작과정을 경험합니다.
2. 각 전공별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동문무용단의 공연활동을 통해 실기 및 창작능력을 향상시키며 평생사회교육으로서 생활무용 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공 특별 활동은?

무용전공자의 주요 진로는 국·공립 무용단원, 대학교 교수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 강사, 사회문화교육기관의 지도자 등이 있습니다.

내가 졸업하면?

무용예술의 전문 이론가로서 안무가, 평론가 및 예술경영, 행정, 기획, 조명, 분장, 의상 등 다양한 무용관련 분야에 진출합니다. 최근에는 무용분야 뿐 아니라 공연예술분야까지 폭을 넓혀 국제문화교류와 정보 교환을 통해 다방면의 해외진출도 가능합니다.

우리 무용과 선배들은 대학교수, 강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강사, 국·시립무용단 및 발레단 등에서 지도자 및 무용수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연출가, 무대미술, 무대조명, 무용평론가, 무대분장, 무용기획, 무용의상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선택은!

장학금제도 : 매학기 이수학점이 18학점(4학년 12학점)이수하고 각 학년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최우등생(총장상),우등생(학장상)으로 선발합니다.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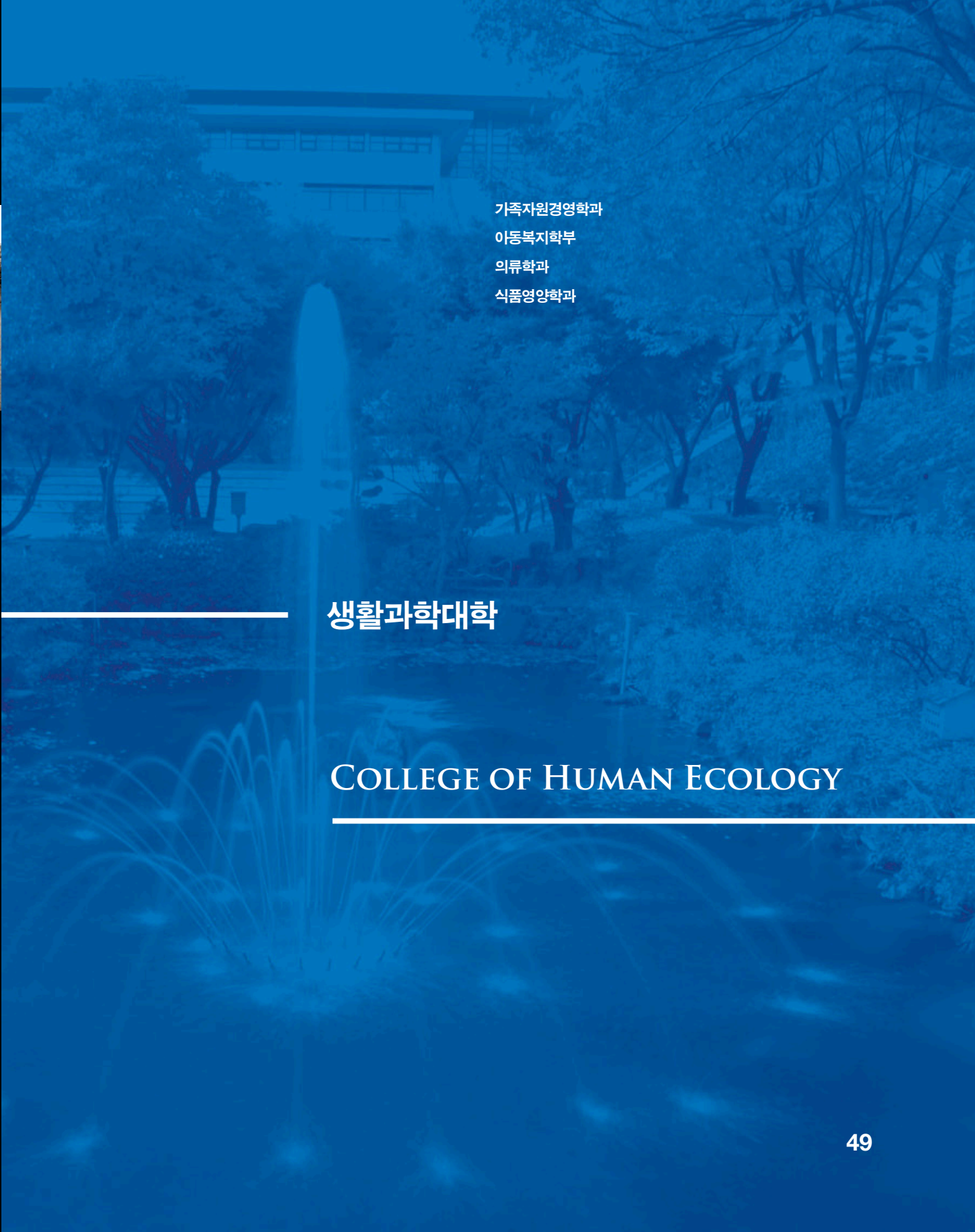
Nutrition



Apparel



Welfare



가족자원경영학과

아동복지학부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과학대학

COLLEGE OF HUMAN ECOLOGY

가족자원 경영학과

DEPARTMEN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가족자원경영학은 사회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가정을 연구 영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문제를 예방하는 일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육성하는 일은 물론 가족구성원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제반 이론과 실용성을 강조합니다. 가족자원경영학과는 사회적 · 물리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전반적 가정생활문제에 대처할 생활 경영 전문 인재를 양성하며, 나이가 가족 생활에 관한 전문적 능력과 통찰력을 토대로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457 • <http://family.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가족자원경영학과 교과 과정에서는 가정생활 전반을 다룬 내용들을 탐구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가정론, 가족상담이론및실습, 가족생활교육론, 건강가정현장실습, 가정경제학, 가족관계, 인간환경과 생활기, 가정자원관리, 노인복지, 구매 의사결정론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의 문화적 측면도 중요시하여 여가문화와 생활관리 같은 이채로운 교과 영역도 탐구하게 됩니다. 아울러 비서학연계전공이 개설되어 있어, 전문비서로 취업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 전공 특별 활동은?

우리 과에서 주관하는 '생활문화와 국제매너 실습' 과목을 수강할 시, 생활예절 및 가사 실습공간인 숙인당에서 약 3주간 머무르며 생활하게 됩니다.
이 과목 수강을 통해 타과의 친구들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매너와 생활예절을 배우며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 내가 졸업하면?

우리 학과에서는 대표적으로 국가자격증인 '건강가정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직과정 이수 시 가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여 교직에의 길도 열려있습니다(2명 선발). 그 외에도 학회 발급 자격증인 가족상담사 2급, 가족생활교육사 2급, 공공가정관리사 등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건강가정사' 취득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국제여성교류재단 등으로 진출하여 전공지식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사, 교수, 금융권, 대기업, 기자 등 다양한 직군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장학금제도 : 우리 학과만의 장학금으로 '설호연 장학금'이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박사 졸업생이 학부생에게 대학원에 진학할 때 주는 장학금입니다.

1972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는 이후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창조적 시너지 창출능력을 향상시키며 명실상부한 아동복지학의 메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는 아동복지학부제, 곧 아동복지학전공, 아동보육 · 교육전공, 아동심리상담전공의 3 전공트랙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 전공트랙에서는 우리 학부에서 추구하는 '전문 지식과 실천역량을 지닌 신뢰있는 아동복지전문가'라는 인재상 구현을 목표로 하여, 아동복지 일반에 관한 기초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아동복지, 아동보육 · 교육, 아동심리상담에 관한 심화학습을 합니다.

아동복지학부

DIVISION OF
CHILD WELFARE &
STUDIES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477 • <http://childwelfare.sookmyung.ac.kr/>

아동복지학부제에 따른 각각의 전공트랙제를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운영하여 일관성과 전문성과 통합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세부전공 이수 기준(18학점)을 충족하고 학생이 희망한 경우에는 하나의 세부전공이 학적부와 학위증에 기재됩니다.

* 전공필수과목: 아동복지론, 아동발달, 보육학개론

- 아동복지학전공: 청소년복지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등.

- 아동보육 · 교육전공: 보육과정, 보육실습, 유치원교육론, 창의성발달교육 등.

- 아동심리상담전공: 아동상담, 아동심리검사, 임상사례연구, 놀이치료 등.

이외 연구방법론적 과목으로 '통계적방법및실습'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

우리 학부의 대표적인 특별 활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아동놀이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동놀이한마당'에서는 인근 공원으로 가족과 나들이를 나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놀이봉사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매년 가을 인형극부 '숙돌'의 정기공연이 두 차례 열립니다. 인형극부 학생들이 의상과 소품까지 손수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선보이는 뮤지컬과 인형극입니다.

전공 특별 활동은? ●

아동복지관련기관(아동관련 국제기구,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재단, 아동권리관련 단체,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아동보육 · 교육관련기관(보육 및 유아교육기관, 전국보육정보센터, 교재 · 교구의 연구개발관련 기관, 각종 보육 및 유아교육관련 사업 분야 등), 아동심리상담관련기관(대학원 진학을 통해 치료사나 상담사 과정 이수, 국공립상담전문기관, 아동상담소, 놀이치료실 등), 신문 · 잡지 · 방송 · 출판 분야에서 '아동전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졸업하면? ●

많은 선배들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에서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앙보육정보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한국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등의 아동관련 기관에서 활동합니다.

선배들의 선택은! ●

의류학과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우리 의류학과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온 복식문화를 연구하고, 재구성하며 학문체계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실용성과 문화를 모두 반영하는 의류학은 사회 · 경제 · 문화예술 · 과학기술 등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종합적 학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학과는 21세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세계화 · 고급화 · 개성화에 중점을 두고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할 때, 전문 지식의 토대가 될 미학 · 경제학 · 경영학 등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방적인 사고방식 · 응용력 · 사고력 · 창의력의 소유자라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학문입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463 • <http://cloth.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세부적으로 복식 미학과 디자인, 의복 구성학, 섬유과학, 동양복식미학과 디자인, 패션마케팅 분야로 나누어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문화의 예술 양식과 미적 가치관 변화에 따른 복식의 변천을 현대적 시각에서 조망하고, 인체와 의복의 합리적 관계를 이해합니다. 또한 의복을 3차원적 입체 구조물로 파악하고, 패션 소재나 신소재에 대한 정보 이해와 염색 · 가공에 대한 실습을 통해 소재 개발능력을 키웁니다. 나아가, 한국복식문화 및 동양문화의 미적 근원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 독특한 미학을 살피, 이를 현대 패션디자인에 적용하고 상품화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탐구합니다.

● 전공 특별 활동은?

우리 학과 내의 '의류학과 리더십 그룹'은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패션 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창설된 "씨실과 날실"이 2004년 2월에 "Clotho(클로스)"로 재탄생되었고, 2010년 8월부터는 의류학과 학회로 등록되어 전공 선후배간의 친목 도모와 학업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학년들을 대상으로 의류학을 이해하도록 의상제작을 위한 기본 수업, 패턴, 일러스트 등을 지도하며, 이를 토대로 축제기간에 패션쇼를 개최합니다.

● 내가 졸업하면?

2011학년도 취업을 우수학과에 선정된 의류학과는 경영 부분(패션디렉터, 패션컨설턴트 등), 상품기획 부분(패션디자이너, 모델리스트, 텍스타일디자이너, 니트디자이너, 소재기획, 머천다이지 등), 영업 부분(패션바이어, 샵마스터 등), 생산 부분(프로덕트매니저, 소재컨버터, 테크니컬디자이너, 소재개발 등), 저널 부분(패션칼럼리스트, 패션에디터 등), 판매 · 촉진 부분(디스플레이디자이너, 아트디렉터 등), 연구 부분(연구소 소재 연구원), 교육부분(중등학교 교사) 등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 지식과 능력을 펼칠 기회가 생깁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많은 선배들이 21세기가 요구하는 국제화 · 개성화에 부합하는 전문적 교육을 받은 다음, 의생활 부분에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고, 또한 국내외의 의류학과 패션산업에 이바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식품영양 학과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식품영양학은 식생활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며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식품영양학의 세부전공은 식품의 생산부터 취급 ·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연구하는 식품학, 그리고 식품 소비 시 인체에 일어나는 생리학적 · 생화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영양학으로 구분합니다. 식품학에서는 식품을 생산하는 과정 및 소비자들에게 식품을 공급하는 급식경영자의 역할까지 포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영양학에서는 인체의 발달 · 성장 · 기능을 위한 식품의 역할을 규명하거나, 다양한 질병 예방, 식품의 역할을 연구합니다. 다시 말해, 식품영양학은 다양한 측면에서 식생활을 다루는 미래형 학문입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470 • <http://fn.sookmyung.ac.kr/>

우리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우선 각종 식품재료의 성분과 성질을 파악하고, 조리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반응에 대한 실험과 검토 작업을 통해 합리적인 조리방법을 익힙니다. 다음, 식품 재료의 가공처리 방법과 가공식품의 취급 · 저장 · 유통 · 소비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합니다. 인체가 식품을 소화하고 대사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인체생리학과 생화학에 대한 지식도 습득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 성분의 체내 기능을 규명하고, 영양소의 불균형 · 유전적 결함 · 대사과정 이상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탐구합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대중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합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

매 학기 개강총회, 전공학생 'membership training', 전공 설명회, 학술제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집니다. 특히 학술제는 전통 있는 학생활동으로, 중요도 높은 주제를 정해 11월 전후로 개최하는 큰 행사로서 1986년 11월 제1회 '임신과 영양'이라는 주제로 학술제를 개최한 이래 '빈혈과 식생활', '현대인과 장질환', '비만과 다이어트' 같은 주제로 매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공 특별 활동은? ●

영양사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양사로 진출한 동문들은 국내 주요 대학병원과 대기업 등에서 활동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선배들처럼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언론이나 출판 분야로 진출하는 길도 있으며, 2007년부터 시행된 영양교사 임용 제도로 초·중등학교에 재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졸업하면? ●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공주대학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주)CJ, 풀무원, 이룸, 정식품, 서울유유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안암병원, 한양대병원 등 종합병원과 신세계 푸드시스템, 아워홈 에서 영양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선택은! ●

장학금제도 : 우리 식품영양학과는 오투기 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비롯해 다양한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Society



Human



Relation



Administration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홍보광고학과
소비자경제학과
사회심리학과

정치외교 학과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은 폭넓은 사고와 예리한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학문입니다. 1953년에 생겨나 오랜 역사를 지닌 정치외교학과는 그동안 사회를 이끌어 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인재들을 양성해왔습니다. 이는 다양한 교과목 개발, 학생 참여활동 그리고 교수와 학생간의 멘토링을 통한 철저한 면대면(face-to-face) 학생관리를 통해,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는 일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현실 정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분석력을 갖게 하고, 국제관계와 외교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안목을 갖게 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488 • <http://politics.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정치외교학과는 전공에 필수적인 교과목들을 개설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반영할 신설 교과목들을 꾸준히 교과과정 개편에 반영해오고 있습니다. 세부 전공으로 정치사상(고대 · 중세 정치사상, 근현대 정치사상, 인권과 정의 등), 국제정치(전쟁과 평화, 국제정치학, 외교정책의 이해 등), 비교정치(비교정치론, 정치발전론, 한국정치론, 선거와 정당, 다양한 지역의 정치와 외교), 방법론(정치학방법론, 계량정치분석)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전공 특별 활동은?

우리 학과는 강의실 내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현장학습과 각종대회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과관련 특별활동으로 전방체험행사, 하계와 동계방학중 동남아와 아프리카 봉사단 활동, 전국대학생 모의 유엔회의와 안보토론대회 참가 등이 있습니다. 전국규모 학생 경연대회에서는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외무고시 준비반으로 '숙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가 졸업하면?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졸업 후 정치(정치, 정당, 시민운동), 국제기구, 미디어(언론, 홍보), 기업, 교육, 연구, 공공서비스(정부기관, 군 ·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졸업생들이 국제기구, 외교기관, 정당, 지방행정, 시민단체 분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학원진학과 취업 이외에도 방송, 출판, 인터넷 관련 분야로 많이 진출하는 경향입니다. 또한 우리학과에서는 선발절차를 거쳐 사회과목 2급 정교사 자격증취득이 가능합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선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이경숙(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윤미영(미국 인디애나 주 하노버 대학 교수), 이금희(아나운서), 신수진(국내 최초 민간항공기 여성 기장), 최아영(대전지법 판사), 문한욱(육군 중령)등의 선배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행정학과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은 국가의 살림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잡 다양한 국가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가서 국가와 사회 각 부문 간의 균형적 발전을 총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사회과학입니다. 따라서 행정학은 다양한 공공과제에 대한 대응력 있는 행정 운영체계를 수립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합리적 의사 결정과 이를 적절하게 실천할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고, 나아가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등 이론 중심의 연구를 뛰어넘는 탐구를 종합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국가 기능이 확대되고 삶의 질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학문입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499 • <http://pa.sookmyung.ac.kr/>

행정학과와 교과과정은 크게 인사행정, 재무행정, 정부·사회관계, 지방·도시행정, 행정조직, 행정정책 등의 과목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느낌을 주는 교과명들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현대 학문의 결실이 종합적으로 응용되어 있는 흥미로운 교과목들입니다. 다음은 그 교과목들의 예시입니다 : 인사행정(인사제도,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보수 등) · 재무행정(예산의편성및운영, 재정상황 등), 정보화(정보사회, 사회분석모델, 시스템다이내믹스 등) · 정부·사회관계(규제정책, 행정철학, 시민사회 등) · 지방·도시행정(지방행정, 도시행정, 지방의회, 지방재정 등) · 행정조직(동기부여, 리더십, 조직진단, 조직발전, 커뮤니케이션 등) · 행정정책(정책기획, 정책과정, 정책평가 등).

행정학과 내의 동아리 '청파민국 모의 국무회의'는 이슈가 되는 정책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극모임입니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구성해 연기와 연출을 합니다. 이 연극모임은 2004년 한국행정학회에서 개최하는 전국 대학생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정'을 뜻하는 '스디앗' 동아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도서를 읽고 토론합니다.

우리 행정학과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물론, 여러 일반 기업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5급이나 7급 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KBS·MBC·YTN 등의 언론계와 금융계에서 활동하는 선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학과와 대부분 선배들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 중 몇몇 선배만 언급한다면, 정경실(1995, 대통령직무사무원위원회), 이우영(1996, 노동부), 김의영(1997, 기상청), 이경애(1994, KBS), 문정남(1998, MBS), 이난이(2004, 행정안전부), 박우빈(2005, 지식경제부), 김지영(2007, 서울경제신문) 등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

전공 특별 활동은? ●

내가 졸업하면? ●

선배들의 선택은! ●

홍보광고 학과

DEPARTMENT OF
PUBLIC RELATIONS
& ADVERTISING

홍보광고학과는 나날이 높아지는 홍보광고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1997년에 신설되었습니다. 홍보광고학과에는 국내 동종학과 설치 대학 중 가장 많은 40개의 전공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미디어 환경 및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교과과정의 개편과 업그레이드에 힘쓰며,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와 기획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과 이래 해마다 80% 이상의 높은 순수취업률을 기록하며 수많은 졸업생이 전공분야에 진출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발한 학생활동과 다양한 전공이벤트, 교수-재학생 간 끈끈한 유대는 홍보광고학과의 자랑입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734 • <http://prad.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홍보광고학과는 홍보와 광고과목, 이론(26과목)과 실습(14과목)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커리큘럼 및 졸업 후 희망진로에 따른 학습로드맵 구축을 통해 재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인 평균 7년 이상의 풍부한 현업 경험을 갖춘 6명의 전임교수와 더불어 홍보광고분야의 매니저급 실무자가 겸임교수 또는 외부강사진으로 참여하여 재학생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공 특별 활동은?

홍보광고학과에서는 연중 다채로운 전공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에 열리는 숙명광고제와 홍광인의 밤의 행사를 비롯해 교내 PR경진대회, 숙명 광고대상, 리더십캠프, 전공 MT, 딸기파티, 취업간담회, 전공설명회 등의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 동아리로는 애드벌룬과 프로필이 있으며,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전국 규모 PR/광고 공모전에서 수상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 내가 졸업하면?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전공분야는 실로 다양합니다. 먼저 홍보분야를 보면 기업체나 정부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의 홍보실(또는 마케팅부서)이나 PR대행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광고분야에서는 광고대행사의 광고 기획자, 카피라이터, 미디어플래너, 프로모션대행사의 판촉 또는 이벤트 기획자, 또 프로덕션의 CM플래너나 CF감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밖에 미디어리서치회사나 소비자조사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현재 제일기획 카피라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문선영 동문(02학번)을 비롯해, 국내 주요 광고대행사와 PR대행사 및 기업체 홍보실에 많은 졸업생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옥성아 동문(03학번)의 경우는 2007년 SBS 방송사의 교양예능 PD로 취업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경제 학과

DEPARTMENT OF
CONSUMER
ECONOMICS

숙명여자대학교의 소비자경제학과는 이 분야 중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학과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껏 소비자 분야에 가장 많은 소비자지도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오늘날 기업은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해 경영 현장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는 이렇게 건강한 시장경제 운영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로 변화하며, 소비자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경제학과는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여성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하여 배출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525 • <http://conecon.sookmyung.ac.kr>

소비자경제학과는 과목은 정부와 관련하여 소비자정책, 소비자법, 소비자행동 등이 있고, 기업과 관련하여 소비자행동, 현대소비자의 성격, 소비분석방법 등의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소비자교육, 소비자정보, 소비자상담 등을 공부합니다. 소비자문제를 현장에서 체험하기 위한 인턴과정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

우리학과에서 매학기 개최되는 전공특별활동은 교수님과의 간담회, 전공설명회, 취업설명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과의 주요 특별 활동으로 학생들이 소비자원을 방문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수되는 소비자 문제와 그 처리 방법을 듣기도 하고, 기업에 접수되는 소비자 불만을 분석하고 기업이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합니다.

전공 특별 활동은? ●

학과를 졸업하면 정부, 기업, 소비자단체 등으로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학과졸업생들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관련부서 등의 정부기관으로 진출하거나, 금융계나 일반 기업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관련 기관 등으로 진출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소비자전문가로서 기업에 취업하거나, 각종 연구원이나 학계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졸업하면? ●

한국소비자원에는 우리 소비자경제학과 1회 졸업생을 비롯해 상당수의 선배들이 재직하고 계십니다. 태평양화학, LG전자, 삼성전자, 남양유업, 주요 은행에도 여러 선배들이 일하고 계시고, 소비자 연맹이나 소비자단체 협의회 등 민간단체에도 일하는 선배들이 계십니다.

선배들의 선택은! ●

장학금제도 : 장학금으로는 소비자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교외 장학금인 GS소비자 리더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사회심리 학과

2011학년도 신설전공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사회심리학과는 21세기 거대한 변환 속에 있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1년 웅비의 첫걸음을 내딛 신설학과입니다. 통합적 사고와 상상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는 우리 학과는 사회학, 문화인류학, 여성학 등을 심리학과 접목함으로써 심리학의 영역을 확대하고 학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즉 교육과정에서 학문간 경계를 허물고 다양성을 넓혀 학문의 지평확대와 심화된 전공을 기반으로 학생들은 전인적인 인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더 널리 보고 더 깊게 사고하는 사회심리학과 학생이 우리 사회를 선도할 것입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2077. 7621 • <http://socpsy.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사회심리학과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 심리적 · 여성학적 관점에서 인간 행동과 사람들 간의 상호 관계, 사회문화의 구조와 변화를 탐구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과목들로 구성된 교과과정이 있습니다 : 여성심리학, 여성사회학, 한국여성연구, 섹슈얼리티연구, 성과사회, 사회학적 상상력과현대사회론, 한국사회의구조와문화의이해, 마이너리티연구, 문화심리학, 다문화사회와집단심리학, 현대사회와심리학, 발달심리학, 산업심리학, 상담의이론과실체, 임상심리학 등.

● 전공 특별 활동은?

사회심리학은 사람의 생각, 사고, 마음을 움직이는 학문으로서 대학과 현장, 순수와 응용 등 전방위적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사회심리학은 통합적 사고, 창의적 사고,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요하며 생각하는 힘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콜로키움, 워크샵, 사회심리관련 드라마 등 여러 활동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5월 사회심리 전문가와 함께 하는 특별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학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벤트, 심포지엄, 세미나 등에 참여한 후 함께 지식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내가 졸업하면?

오늘날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인간관계나 조직 내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사회는 사회생활에서 오는 가중된 스트레스를 다룰 전문인력을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다문화 심리 · 교육전문가로부터 시작해, 여성심리상담전문가,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복지상담사 같은 상담 직종에서 일할 기회가 있고, 사회조사분석사, 기업조직심리전문가 같은 연구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Interview

숙명 ROTC 1기 / 법학부 3학년 / 양 지 민

최초, 숙명의 역사를 다시 쓰는 수식어

2010년 12월 10일, 숙명여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여성학사장 교 1호를 배출할 제 217학군단 창설식이 있었다. 미래 여성인 재가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30명의 후보생들 중 양지민 후보생을 만나보았다.

“쿨럭쿨럭, 어보세요.”

전화상으로 들은 첫 마디였다. 3주 동안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직후였는데 감기에 걸린 상태라고 한다.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양지민 후보생은 군인이 되어간다는 생각에 더 설레고 본인의 목표가 더 확연해진 눈빛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감기 걸렸는데 몸은 괜찮은지 물어보는 질문에 오히려 본인보다 더 많이 다친 동기들을 걱정했다. 기초 군사훈련에 대한 궁금증을 던지시 던져보니 벅찬 표정으로 많은 이야기를 꺼냈다. 눈이 오는 날씨에 30kg의 군장을 메고 8시간 동안 25km가량을 행군 했다고 한다. 내가 뒤처지면 같이 훈련 받는 동기들도 뒤처진다는 생각으로 힘들어도 꼭 참았다고. 성공적으로 행군을 마친 뒤 한계를 이겨냈다는 뿌듯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군인, 경찰처럼 국가를 위해 몸 바쳐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어요.”

양지민 후보생은 어떠한 계기로 ROTC가 되고 싶었던 것일까? 어릴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선진국만큼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했다고 한다. 여러 고민 끝에 법학부에 지원했고 안보, 국제 관계에 관심이 많아 정치 외교학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했다. 숙명여대가 ROTC 시범대학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본인에게 꼭 잡고 싶은 기회로 다가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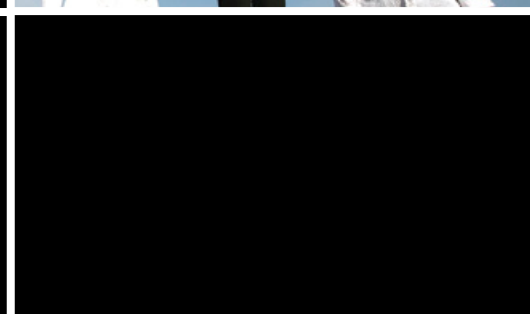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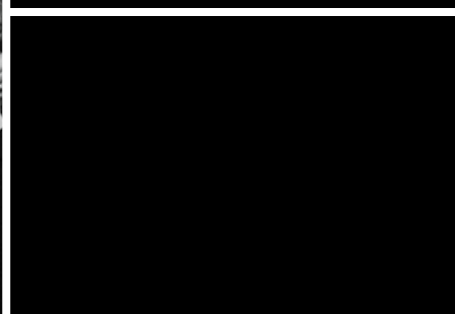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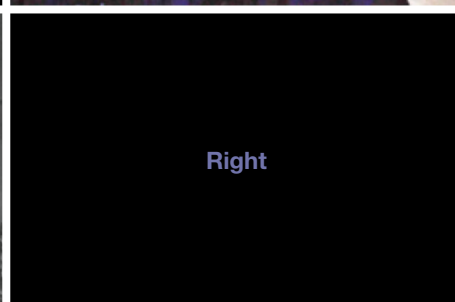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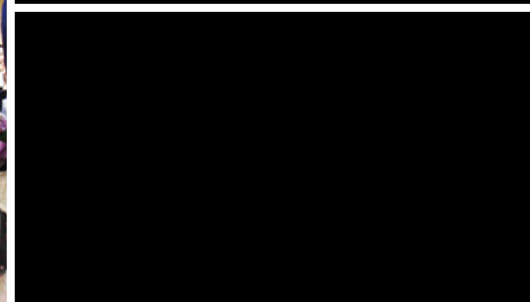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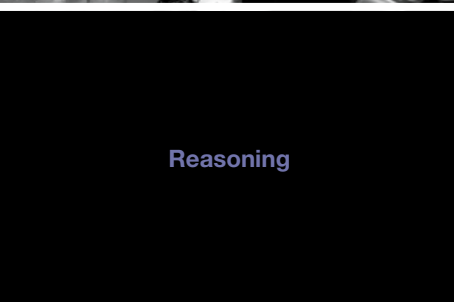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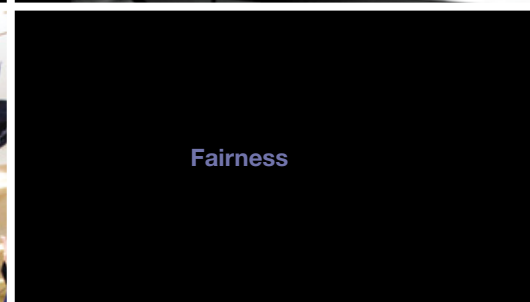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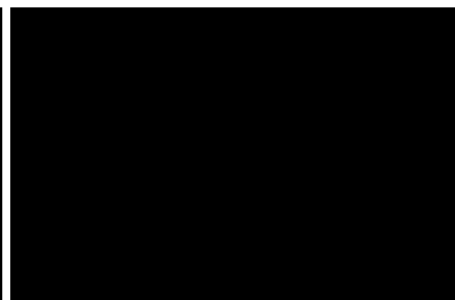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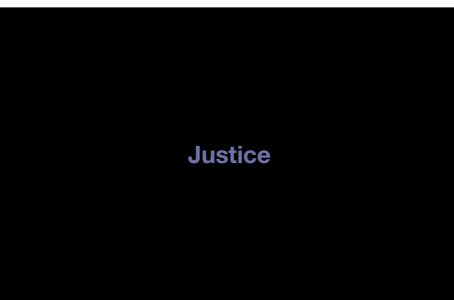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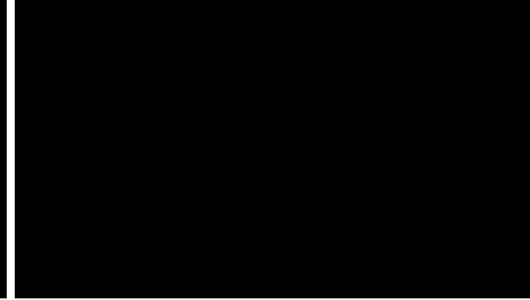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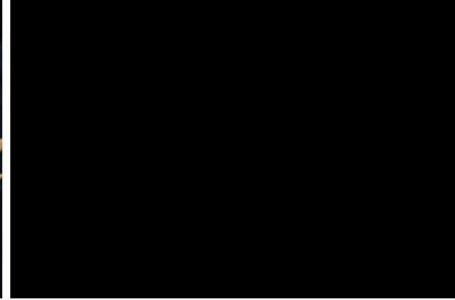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 길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매달렸어요.”

선발 테스트(1차 필기/ 2차 체력평가, 면접, 신체검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았다고 한다. ROTC 준비 동아리에 가입하여 매일 체력 훈련과 테스트 준비에 임했다. 바쁜 와중에도 국방부 서포터즈 자격으로 육군 3사관학교 캠프에 참여했다. 그녀의 엄청난 열정과 집중이 지금의 현재 모습을 만든 것이 아닐까.

본인의 진로를 물어보았다. ROTC 장교로 임관되고 2년 4개월간 복무한 이후 직업 군인으로서 장기 복무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확실히 결정 내리지는 않았지만 현병이나 보병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소대원들 앞에 솔선수범을 보이는 소대장이 되고 싶다고 답변하는 양지민 후보생에게서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을 지닌 여성 인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숙명여대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지 물어보았다.

“제 별명은 에너지이제요. ROTC 후보생으로 훈련에 열중하면서도 교육봉사나 위탁가정 아동을 돌보는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숙명여대에 입학하면서 리더십에 대해 한층 더 생각하게 되었고 곧바로 실천에 옮겼어요. 숙명여대에서 만 나길 바라요.”





COLLEGE OF LAW

도서관
Library

법과대학

법학부

법학부

DIVISION OF
LAW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발전과 사회적 기능의 다변화로, 모든 분야에서 법에 관한 전문지식과 건전한 민주 시민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은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력을 갖춘 여성 인재를 육성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의 기초이론과 실정법 해석론, 그리고 급속히 변모하는 현 사회에서의 제반 법적 현상에 관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법률직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494 • <http://law.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 절차법과 실체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권리 주체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헌법, 행정법, 형법 등이 있습니다.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 하고, 민법과 상법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법에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영미법, 법제사, 노동법, 국제법, 법철학, 국제거래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률사상사, 사회보장법, 어음수표법, 해상보험법, 법여성학, 법사회학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전공 특별 활동은?

우리 학부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치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도록 '민사법학회', '법지', '법과대학 리더십 봉사단', '형사법학회', 'ALSA'(아시아 법학생연합), 경제법학회 등의 특별 활동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제, 소모임, 스터디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선후배나 동기들과 친목을 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내가 졸업하면?

법학을 공부하면 매우 다양한 사회 진출의 길이 있습니다. 법원, 검찰, 법무법인(법률사무소 포함), 법학 연구원, 법률 상담원, 행정 각 부처의 법무 담당 분야, 그리고 법을 필요로 하는 사회 각 분야로 진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사법시험 · 행정고시 등의 각종 고시를 준비하거나 변리사 · 법무사 · 노무사 · 각급 공무원 시험에 대비할 수 있어, 전문직을 원하는 학우에게 적합한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많은 선배들이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 김용화(숙명여대), 차선자(전남대), 방경희(법무법인 신아), 김정진(안양지청), 손영화(SC제일은행), 김현숙과장(KT&G), 정혜영(숙명여대), 고민숙(군법무관), 이혜진(청주지방법원), 김한나(SBS보도제작국), 고혜련(법무법인 대유) 등의 선배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 이외에도 많은 선배들이 자신들의 영역에서 전공 지식을 활용하며 활동하고 계십니다.

장학금제도 : 사법 · 행정고시 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고시반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녀 진학 문제 이젠 아버지가 나선다”

숙대 ‘아버지·자녀 진로탐색 워크숍’

‘자녀 진학 문제는 엄마의 몫’이라는 인식은 옛날 얘기다. 요즘은 아버지가 자녀 입시, 진학 문제에 더 적극적이다. 각종 사교육업체 등에서 주관하는 입시 설명회에 참석하는 아버지가 늘고 있고, 대학 입시상담센터에는 어머니 대신 입시문제 상담을 요청하는 아버지들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100주년기념관에서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 40명이 딸과 함께 한자리에 모였다. 이 대학이 고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마련한 ‘아버지·자녀 진로탐색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행사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땐, 참석자들이 휴가를 내고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인데도, 아버지들은 딸을 위해 기꺼이 갈수었다. 행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도착해 참석자들의 한 줄 중 유인 MBTI 검사도 받고 입학사정관 등 학교 관계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중에서도 어느 참석자보다 활발하고 다정해 보이는 부녀(父女)가 눈에 띄었다. 직업군인인 아버지 윤여표씨와 2학년 여학생 딸 지수양이 다양한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숙명여대에서 열린 ‘아버지·자녀 진로탐색 워크숍’에 참석한 윤여표씨와 딸 지수양이 다양한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군인 윤여표씨와 고2 딸 지수양

직장에 휴가까지 내고 자녀 위해 참석
때때로 아버지가 출연자·면접관 역할
대화 자주 나누니父女 사이 가까워져

심는 것까지 준비해 왔다.

많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에 입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윤씨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보면 창의성과 관련된 주요 활동을 기록하도록 했는데, 글쓰기로 입상한 것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사정관 전형 종류에 군 지대, 지대 내세장 수련, 자기주도형 진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떤 전형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사정관 전형에 관련된 과목 정원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궁금해하는 모양이다. 입시전형을 알면 알지 않고서는 물어볼 수 없는 바쁜 군 생활 중에도 틈나는 대로 각 대학

윤씨는 바쁜 군 생활 중에도 틈나는 대로 각 대학



○숙명여대 ‘아버지·자녀 진로탐색 워크숍’에 참석한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진로계획에 관한 전문가의 특강을 듣고 있다.

출연자에게 불어가 입시전형을 숙지하고 계시다면, 출연된 질문과 답변을 유심히 살펴봤다. 딸이 학교와 학원에서 가져온 대학별 입시요강 소재지를 3번이나 정독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열성적이다 보니 딸은 진학 관련 고민이 생기면 늘 아버지를 먼저 찾는다. 윤씨는 “생활에 관련된 고민은 주로 엄마와 얘기하지만 진로·진학 문제는 시시때때로 몇 가지 아버지와 상담한다”며 “친구들과 얘기에 보면 우리 아버지처럼 내 몸이 관심이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자랑했다.

윤씨는 작은 라디오 프로듀서로, 아버지는 딸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삼아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싶다는 딸을 위해 밤잠을 자고 라디오를 틀으며 원고를 직접 쓴다. 딸이 DJ가 되고 아버지가 출연자가 되어 인터뷰를 해 보기도 했다. 딸도 입학사정관에 대비해 아버지에게 면접관 역할을 맡아 딸을 평가하기도 한다.

대화를 자주 나누니 딸이 아버지 부녀 사이는 더

욱 가까워졌다. 지난해부터 딸이 기숙사 생활을 한 탓에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지만 한 달 때마다 스킨십을 나누며 반가움을 표현한다. 일반적인 가정의 아버지와 고3 딸의 관계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최근 대입제도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보를 얻고 MBTI 결과를 통해 나타난 부모, 자녀 간 특성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자녀와 함께 진로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도 가졌다.

윤씨는 “자녀의 미래, 진로 문제는 이제 부모가 함께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바쁘다는 핑계로 일과에 쫓겨만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이라도 틈틈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입학사정관은 “학부모 상담회 등을 통해 교수님, 아버지들의 자녀문제 관심이 높아지는 걸 느낀다”며 “앞으로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참여하는 행사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o@sogye.com

(27.5×29.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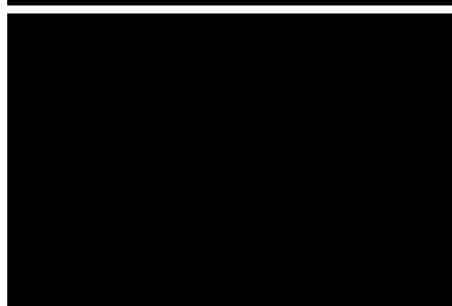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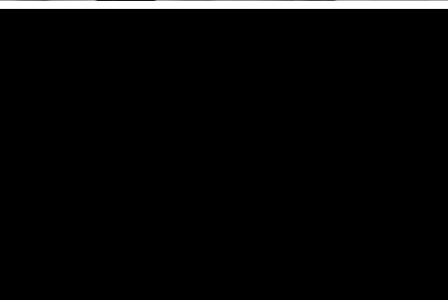
Management



Consu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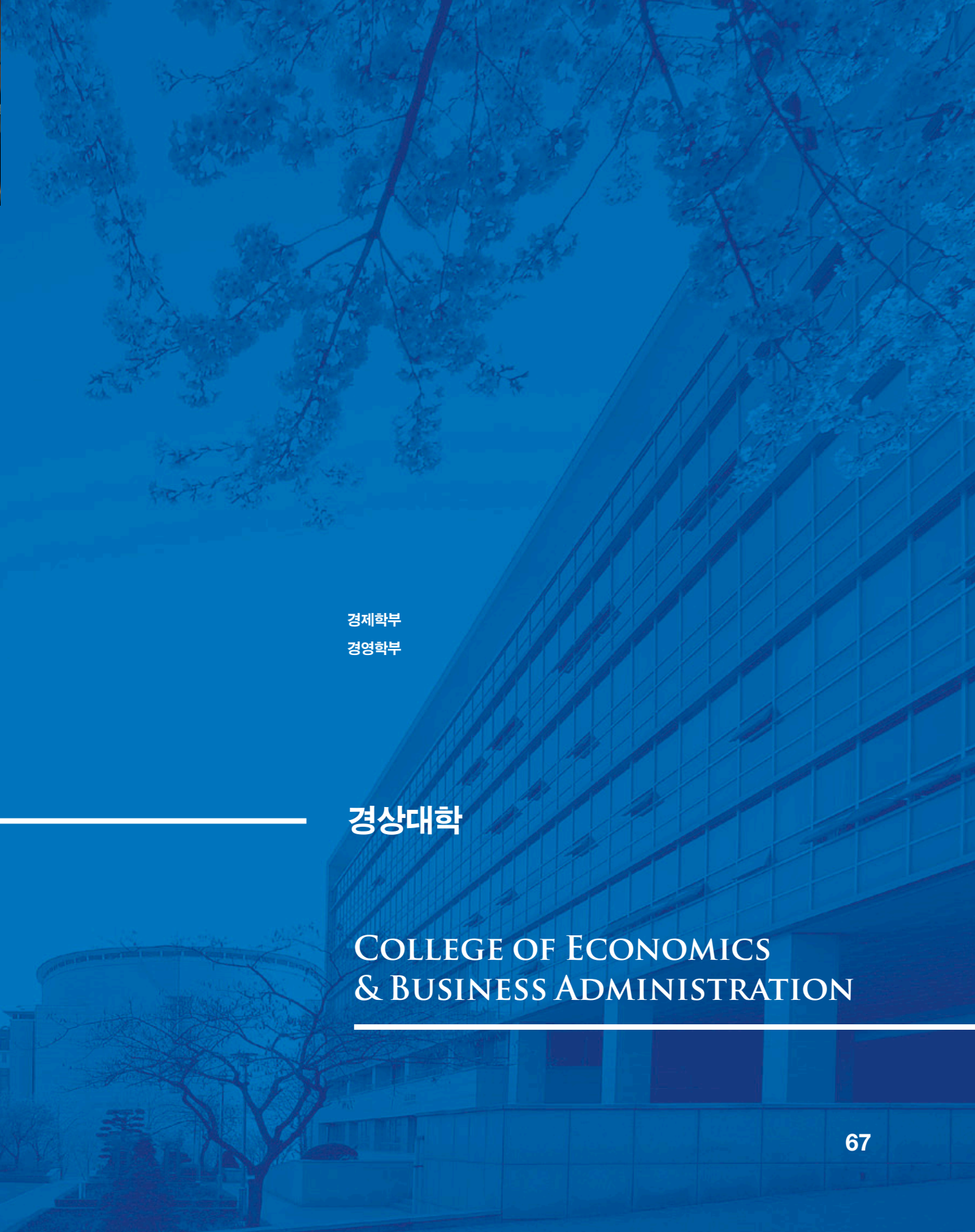


Economy



Industry





경제학부
경영학부

경상대학

COLLEGE OF ECONOMICS
& BUSINESS ADMINISTRATION

경제학부

DIVISION OF
ECONOMICS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는 1955년 정경대학 내에 경제학과가 처음 설치된 이래로 아주 오랜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내 여자대학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학과로, 1997년 학제개편에 따라 경제학과에서 경제학부로 확대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경제학부에서는 이론 분야 연구와 철저한 실무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지닌 여성 경제인을 육성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감각과 시대적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 학부에서는 경제학 계통의 기초과학분야는 물론 현실에 바탕을 둔 응용분야에 관한 강의 및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507 • <http://econ.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경제학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매우 많은 연구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경제학부에는 경제학 이론부터 실무분야까지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경제학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과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학원론,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노동경제학, 서양경제사, 게임과 협상전략, 국제경제정책론, 법과경제, 한국경제사, 응용미시경제학, 경제학사, 계량경제학, 화폐 금융론 등.

● 전공 특별 활동은?

경제학부는 매해 '학술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 '학술제'는 학생들의 학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이 행사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주제를 정해 공부한 다음, 내용을 서로 교환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들, 교수님들, 학우들 사이에 친분을 쌓을 기회를 마련하고, 이러한 교류로 재학생들이 사회생활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경제인의 밤' 행사가 매해 열립니다.

● 내가 졸업하면?

경제학을 전공하면 우선 기업연구소나 금융기관 등에서 일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일반 대기업이나 회사에 취업하여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관심 분야를 더 깊게 공부하는 경우, 이후에 전문연구원이나 교수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직을 희망하는 학우는 교직이수과정을 거치면 사회과목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우리의 선배들은 외국계 기업과 공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 금융기관, 각종 연구소 등 많은 영역에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경제학은 사회 다방면에서 두루 사용하는 만큼, 많은 기업과 연구소 등에서 경제학 전공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부

숙명여대 경영학부는 1959년에 여대 최초로 설치되었고, 2009년에 설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경영학부는 “민족적 긍지로 미래를 창조하는 세계 시민 육성 대학”이라는 우리 대학 전체의 비전과 연계하여, “미래 지향적 경영지식과 윤리경영의 가치를 교육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는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실용성 · 전문성 · 윤리성을 겸비한 여성 경영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현재 우리 사회의 많은 경영 현장에서 선배들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는 앞으로도 점차 심화되는 세계의 경쟁 체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전인적 교양을 지닌 여성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513, 9519 • <http://biz.sookmyung.ac.k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부의 교과과정은 크게 인사 · 조직, 마케팅, 생산관리/경영정보, 재무관리, 국제경영 · 전략, 회계학 등 6개의 세부전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사 · 조직 분야에서는 인적 자원의 확보, 유지, 활용, 개발 방법과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을 다루며, 마케팅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재화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품, 가격 전략, 광고 및 판매촉진, 유통 등을 배웁니다. 생산관리/경영정보 분야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조직의 정보화에 대해 공부하며, 재무관리 분야에서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투자, 자본 조달, 위험관리 방안을 익힙니다. 국제경영 분야에서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 활동의 국제화 전반을 다루며, 회계학 분야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숫자로 표기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을 다룹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

경영학부에서는 ‘경영연구학회’, ‘학술부’, ‘향영’, ‘옴살’ 등 4개의 학생자치활동 동아리가 있습니다. ‘경영연구학회’는 전공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직한 동아리로, 2010년부터는 다른 대학 경영학부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학술부’는 경영학부에서 매년 개최하는 경영사례개발대회를 주관하고, ‘향영’은 47년간 이어 온 5개 학교의 경영학부 연합학술동아리로서 다른 대학 학생들과의 인적교류와 학술활동을 진행합니다. ‘옴살’은 인문학 공부와 공연관람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문화예술경영 동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숙지원’이 있습니다.

전공 특별 활동은? ●

경영학부 졸업생들의 진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분야는 물론 기업체이지만, 회계법인 · 연구소 · 공기업 · 비영리기관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 전문자격증으로는 공인회계사(CPA), 세무사,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공인노무사 등이 있습니다.

내가 졸업하면? ●

많은 선배들이 일선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대표적 예로 '78년에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혜성 동문께서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 국장을 거쳐 '09년부터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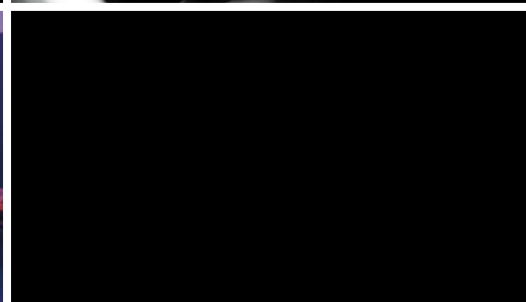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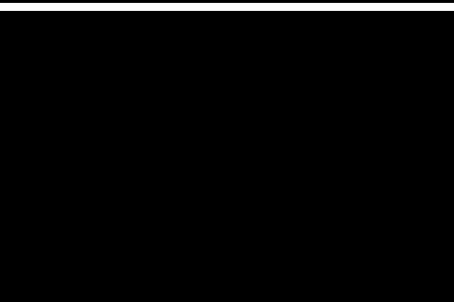
선배들의 선택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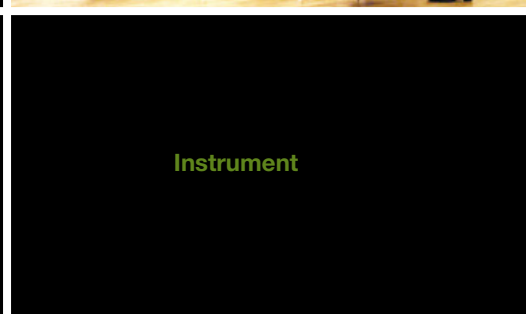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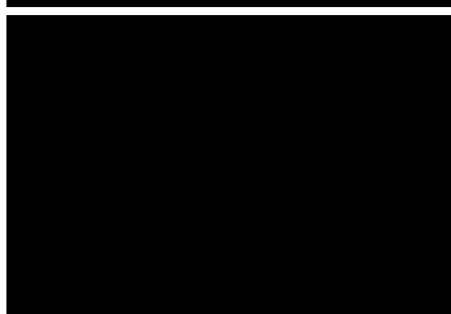
Ensemble



Performance



Composition



Instrument



COLLEGE OF MUSIC

피아노과
관현악과
성악과
작곡과

음악대학

피아노과

DEPARTMENT OF
PIANO

피아노과는 피아노 실기교육은 물론 피아노 문헌, 음악분석, 대위법 등 음악 이론의 연구를 통해 연주자로서의 연주능력과 소양을 갖추게 하고 음악적 감성과 창조력을 계발시켜 전인적 전문 음악인이 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2011학년부터 예술경영, 음악치료, 발레음악, 재즈, 실용음악 강의를 개설하여 학문적 경험 및 재능을 다양하게 표출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천명이 넘는 졸업생들이 피아니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실내악 분야에서 정상급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534 • <http://music.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피아노과는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교과과정이 전공 필수 분야와 전공 선택 분야로 나누어 있습니다

- 1) 전공필수 분야-전공실기, 시창청음, 대위법, 서양음악사, 음악분석, 건반화성, 합창, 피아노문헌, 학내연주, 졸업연주 등
- 2) 전공선택 분야-부실기, 국악개론, 20세기이후연주세미나, 예술경영, 발레음악, 음악치료, 재즈실용음악, 반주법, 앙상블, 피아노교수법, 지휘법 등

● 전공 특별 활동은?

2009년 협주곡의 밤, 2010년 쇼팽, 슈만 탄생 200주년 기념 릴레이 연주 등 다양한 특별 행사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연주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영국 Royal Academy of Music과 자매 결연을 맺어 기념 음악회를 열었고 매년 일정수의 학생들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학회인 '크레센도'와 리더십그룹 '나르샤'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내가 졸업하면?

졸업을 하면 학계, 교육계, 예술분야, 방송 언론계 등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동문들이 대학교수, 강사, 반주자 등으로, 혹은 초·중·고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고, 음악학원을 경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독일, 미국, 러시아 등에서 학문적 소양을 쌓으며 전문연주자의 과정을 성실히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주혜정, 김명선(각 본교 교수 및 명예교수 역임) 외에 다수의 교수 및 강사로서 교직에 몸담고 있거나 연주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기획, 음악출판, 음반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량과 예술성을 인정받은 선배들도 있습니다.

우리 관현악과는 1948년 생겨난 음악과를 모태로 196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래로, 다양한 교과과정을 통해 뛰어나고 전문적인 음악인을 배출해왔습니다. 관현악과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훌륭한 연주자를 양성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의 교양을 폭넓게 갖추고, 각종 연주회 출연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도록 합니다. 또한 음악이론의 연구 지도를 통해 이론적 바탕과 소양을 갖게 하고, 개인의 음악적 감성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창조력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현악과

DEPARTMENT OF
INSTRUMENTS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559 • <http://music.sookmyung.ac.kr/>

관현악과에서는 교과과정이 크게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교과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공필수 : 오케스트라(Ⅰ-Ⅲ), 관악합주(Ⅰ-Ⅲ), 현악합주(Ⅰ-Ⅲ), 화성법, 악식론, 음악 분석, 시창청음, 대위법, 학내연주, 졸업연주.

전공선택 : 부실기(Ⅰ, Ⅱ), 현악앙상블(Ⅰ-Ⅳ), 관악앙상블(Ⅰ-Ⅳ), 타악앙상블(Ⅰ-Ⅳ), 지휘법(Ⅰ, Ⅱ), 관현악문헌(Ⅰ, Ⅱ), 관현악법, 서양음악사, 국악개론.

유명 외국 교수님들의 Masterclass를 통해, 각 악기의 전문적 연주 기능을 개발하는 기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 매년 춘계 · 추계 2회의 정기연주회와 여러 기획 연주회를 열어 여러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협주곡의 밤’을 통해서 전문연주자로서의 실력과 소양을 쌓게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와 2009년부터 시작된 ‘브런치 콘서트’를 통해 학생이 아닌 교내외의 일반 사람들도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대학에서는 지금까지 2천여 명의 현악 · 관악 합주와 실내악 분야에서 정상급 연주자를 배출했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전문연주인(오케스트라, 실내악 연주), 음악기자, 교사 등으로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목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졸업 이후 전공의 특성을 살려 시 · 도립 교향악단에서 활발히 연주활동을 하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이주영 동문, 인천시향의 노정인 · 왕아름 동문, 경기도립의 이로미 · 유사라 · 홍은솔 · 홍성주 동문, 원주시향의 홍솔지 동문, 과천시립오케스트라의 권현진 · 류승연 · 김선주 · 김혜림 · 문지현 · 이은혜 · 이은샘 · 장윤화 · 강민선 · 이진주 동문 등이 우리 학과에서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신 선배님들입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전공 특별 활동은?

내가 졸업하면?

선배들의 선택은!

성악과

DEPARTMENT OF
VOCAL MUSIC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에 1962년 성악과가 개설되었고 다양한 교과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성악인을 지금까지 배출하고 있습니다. 성악과에는 학생을 향한 열정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교수진이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실기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수님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수업내용은 학생들에게 수업을 통해 무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성악과는 기초가 튼튼한 음악적 실력과 더불어 인성이 고루 갖춰진 인재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뛰어난 음악가를 배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533 • <http://music.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전공필수 : 전공실기, 학내연주, 합창, 음악이론, 이어딕션, 독어딕션, 불어딕션, 스페인어 딕션, 러시아어딕션, 영어딕션, 성악문화, 오페라워크숍, 졸업연주.

전공선택 : 부실기, 가창법, 무대연기법, 성악반주법, 성악양상법.

● 전공 특별 활동은?

매 학기 정기적으로 '가곡의 밤', '아리아의 밤'을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무대 경험과 그 동안 수확한 실기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음악대학이 협력하여 매년 개최하는 '협주곡의 밤'에 오디션을 통한 출연 기회를 제공하며 격년으로 시행하는 성악과 주최의 오페라는 학생들에게 종합예술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며 오디션을 통한 수준 높은 공연을 상연합니다.

● 내가 졸업하면?

우리 대학 출신의 성악가들은 세계 유수의 극장과 오페라단에 현역으로 연주할 수 있으며 각 시,군의 공립 합창단에도 취업하여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성악과는 종합성적의 10%에 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직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 시 음악과목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여 학생들에게 교편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 학기 진로와 취업에 관련된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하여 성악을 전공한 학생들이 다양한 관련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학생들의 멘토로 연결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대표적인 성악가로는 소프라노 박현주 동문이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 극장의 주연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뮤지컬 분야의 헤로인 임혜영 동문과 유아 음악교육 분야의 권효주 동문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동문들께서 전공 분야의 교육자로서 여러 음악대학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장학금제도 : 특별히 성악과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장학 제도 외에 매 학기 실기 성적으로 선출된 장학생을 선별하여 실기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작곡은 다양한 음계를 재배열하고 강약과 빠르기 등을 조절해 한편의 조화로운 곡을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의 내면과 영혼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작곡과에서는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며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음악 인재를 양성하려 합니다.

작곡과

DEPARTMENT OF
COMPOSITION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532 • <http://music.sookmyung.ac.kr/>

작곡과에서는 우선 작곡을 하는 데 기초이론을 연구하고, 다양한 장르의 악기를 이해하기 위해 서양악기는 물론 전통악기에 대해 공부합니다. 보다 철학적이고 심오한 작품을 창작하도록 미학 같은 학문도 공부합니다. 1,2학년에서는 화성학, 대위법, 작곡 등 기본이론을 공부하고, 음악분석 등의 과목을 통해 음악의 형식과 구조를 이해합니다. 기악실습, 연주와비평 등의 과목에서는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법과 악기에 대한 비평적 시각을 기릅니다. 3, 4학년에서는 관현악법, 전자음악, 작곡전공실기 등을 통해 각 악기를 위한 곡과 여러 실용음악을 작곡합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 학과에서는 매주 1회 학내연주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작곡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국제적인 학자나 작곡가, 이론가, 연주가를 초빙해 특강도 실시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결성한 작곡모임 '소리장'은 가장 흥미있는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임은 음악과 다른 학문과의 결합을 시도하며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실험적 무대입니다.

전공 특별 활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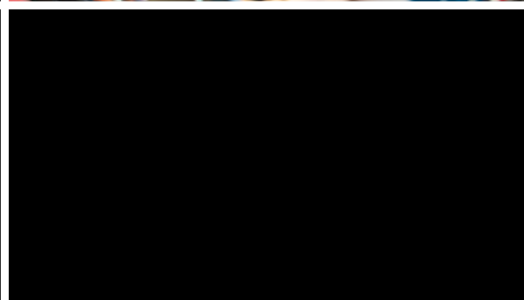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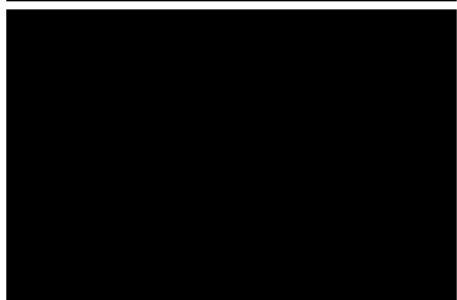
교직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대학원이나 유학을 거쳐 교수가 되는 길이 있고, 임용고사를 통해서도 음악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합창, 오케스트라 지휘자나 반주자가 되거나, 음악기획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연극음악 같은 무대음악과 방송음악 분야에 진출할 기회도 있고, 음악관련 출판사의 취재기자나, 음악PD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음악치료대학원으로 진학하면 음악치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졸업하면?

많은 선배들이 현재 모교인 숙대를 비롯해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대중가요 가수그룹의 실용음악 작곡과 편곡자로 활동 중인 선배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선배들이 공연장의 음악기획팀, 실용음악분야인 영화음악, 무대음악, 방송음악, 음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선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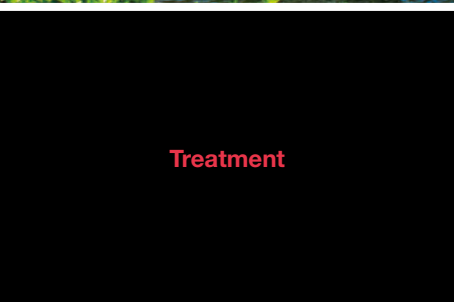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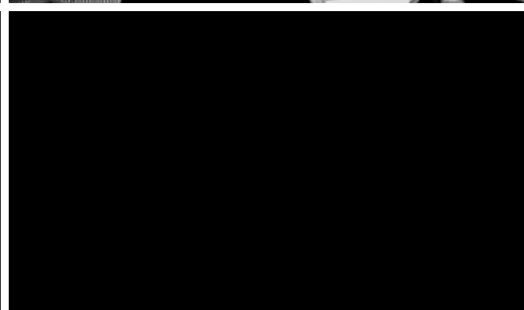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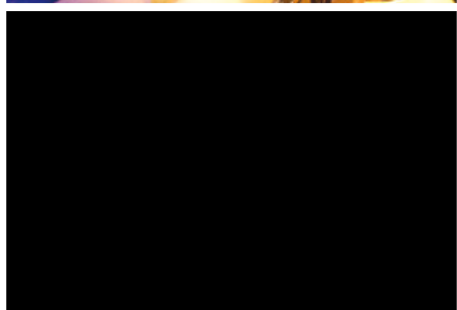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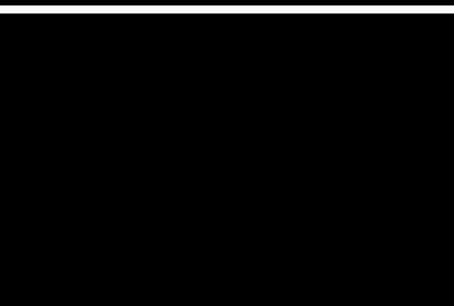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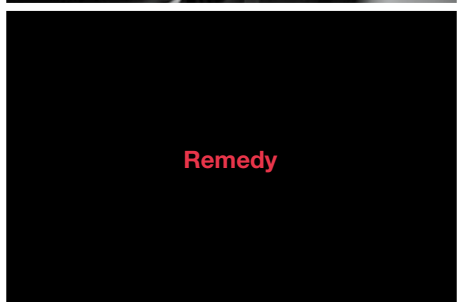
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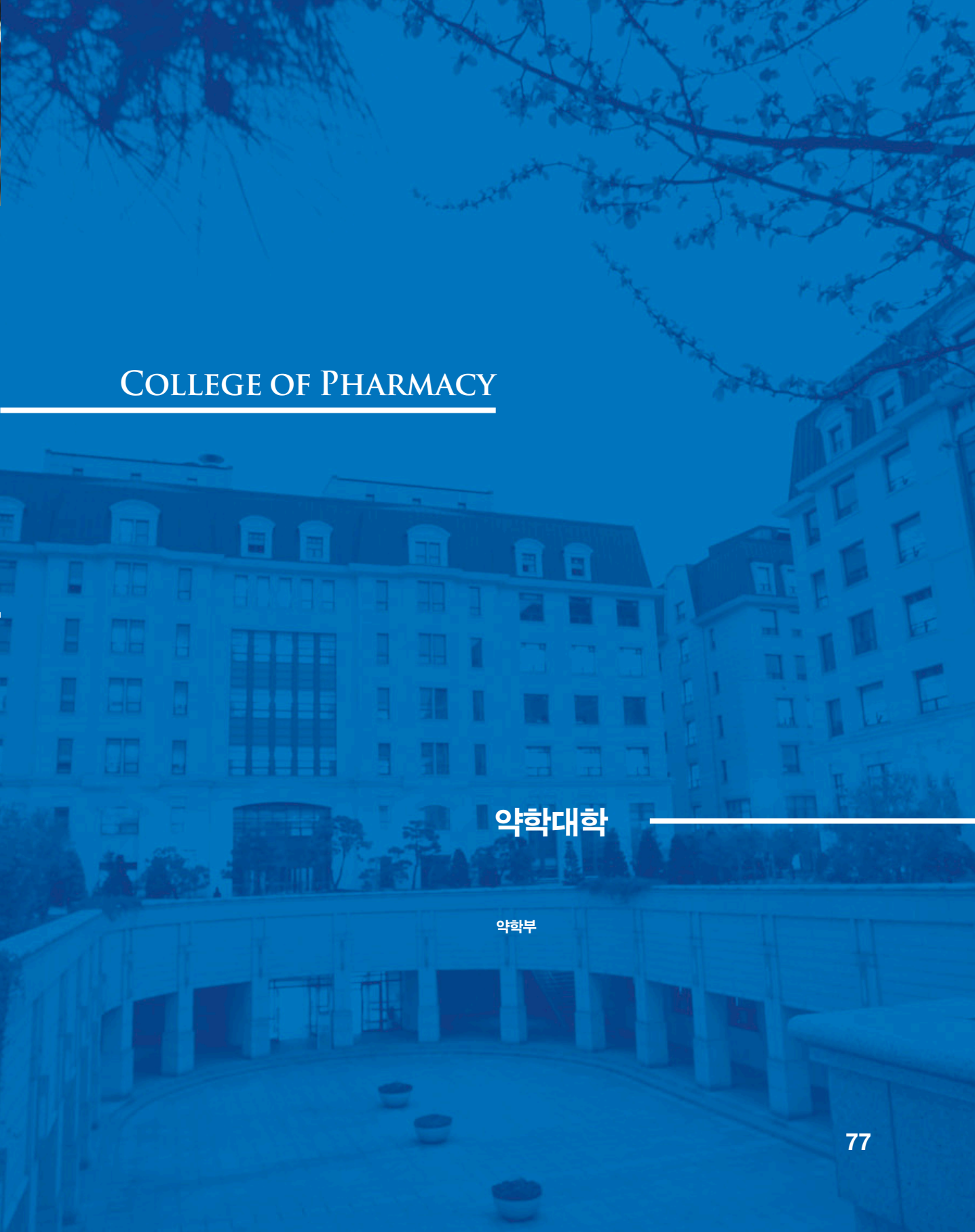


Treatment



Remedy





COLLEGE OF PHARMACY

약학대학

약학부

약학부

DIVISION OF
PHARMACY

2년 이상의 대학교육과정을 통해 선수과목을 이수하고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4년간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약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입니다. 약학대학에서는 약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부과정과 약학전공의 석, 박사 학위를 수여받는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대학원인 임상약학대학원을 통해 현직에 종사하는 약사를 대상으로 한 5학기의 석사 학위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576 • <http://pharmacy.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1, 2학년에는 약사로서의 공통적 전문지식 강의와 실습이 운영되며, 3학년에는 응용약학, 임상약학 및 산업약학의 세부 전공 중 하나의 트랙을 선택하여 학습하는데, 이는 직능분야별로 유능한 인재를 양성, 진출시켜 약사직능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4학년 때는 다양한 실무현장에서 약학대학 교수진과 대학이 지정한 지도약사의 지도하에 실무실습을 이수합니다. 이러한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전문약학사 학위가 수여되며 약사면허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전공 특별 활동은?

학기 중에 지도교수 · 재학생 · 동문이 연계되어 커리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의 창조적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학생의 진로에 따라서 진출 분야 동문과 연계되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과 조언을 통해서 졸업 후 진출 분야에 대한 안목을 키우도록 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 내가 졸업하면?

전문약학사 학위가 수여되며 약사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약사면허를 취득합니다.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제약기업과 유통업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진출하거나 지역약국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건의료관련 연구기관이나 교수 등으로 활동합니다. 이외에도 변리사, 환경기사 등의 다양한 전문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약학대학은 매년 직능분야별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동문을 대상으로 '자랑스런 동문'을 선정하고 이들 동문들은 재학생의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13인의 자랑스런 동문이 최초로 선정, 후배 양성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랑스런 동문은 정영자(65년 졸업, 종오약국 대표), 동을원(76년 졸업, 일성신약상무), 조선훈(77년 졸업, ㈜지오영대표), 정희선(78년 졸업, 과학수사연구원장), 석현주(78년 졸업,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약국장) 외 8명.

장학금제도 : 매 학기당 성적우수자에 수여하는 장학금 외에 다양한 외부장학금을 확보,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재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동문들이 제공하는 장학금(동문회 장학금, 정영자 장학금, 박수선 장학금 등)은 우리대학이 자랑하는 장학금제도입니다.

숙명여대



지난해 2월 숙명여대 한국문화교류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하종영저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문화 체험캠프에서 활짝 웃고 있다.

“우리 것 알려 세계와 소통” 외국인 유학생 해마다 늘어



숙명여대는 한국 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국제화를 강조한다.

숙대 한영실 총장은 “지금까지 국내 대학들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국에 많이 나가는 것을 국제화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진정한 대학 국제화는 우리 것을 해외에 알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숙대에는 한국의 문화를 알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숙명여자공인재단과 한국문화연구원, 정영인 자수박물관, 본선미술관 등이 권위 있는 한국문화 연구 기관이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소통과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한국문화와 세계화, 세계문화의 한국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숙대 국제화의 비전이다. 숙대는 이를 2004년 설립된 한국문화교류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교류원에는 ① 해외의 숙명 문화원 ② 숙명 아시아문화센터 ③ 한국문화원센터 온라인 서비스 ④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4개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베트남 하종영이 등에 있는 숙명문화원은 해외 우수인재를 육성·유치하고 국가 간 문화교류를 위해 해외에 개설한 사무소이다. 또한 숙명이 아시아문화센터 설립해 아시아 각국 학생과 학자들이 숙명여대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문화 콘텐츠 도서관은 한국 문화 교육·연구 자료를 세계와 공유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며, 한국문화원 교육센터에서는 현류들 한국문화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이 따라 국내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숙대는 교육에서의 국제화도 강조한다. 특히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숙명 블루리본 프로젝트’와 일련으로 모든 학생들이 재학 중 1학기 해외연수(교양학성, 복수학위, 해외인턴십 등)를 나가는 ‘숙명 글로벌 특

해외인재 육성·유치하고
국가 간 문화교류 위해
‘한국문화교류원’ 설립

외국 석학·대사 특강 등
‘캠퍼스 국제화’ 앞장서

화(Blue)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카자흐스탄, 가나, 핀란드 국가 대학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별로 글로벌 탐방단을 운영해 여행·겨울방학 때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호주, 일본, 중국 등 30개국에 학생을 파견한다.

미국 아메리카 대학,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중국 우한대학 등과는 복수학위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학과 성격이 우수한 학생들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UC 버클리 등에서 열리는 하계대학에 참여한다.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숙대 캠퍼스 내에서 해외 유명인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른바 ‘캠퍼스 국제화’이다.

우선 주한 외국대사, 해외 석학, 글로벌 기업 전문가 등을 초청해 교내 특강을 이어가는 ‘글로벌 강의 시리즈’ 프로그램이 있다. 외국 명문대학과 협의해 이들 대학교수의 명강의를 다룬 반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SNOW 2.0(Sookmyung Network for Open World)’ 사이트도 ‘캠퍼스 국제화’의 일환이다.

해마다 숙대를 찾는 외국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은 숙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외국인 학생 장학 프로그램의 덕이기도 하다. 숙대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세계지역 혁신인재장학금을 마련, 동아시아 지역 여성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다. 전공별로 외국인 학생 전담 지도교수제도를 뒤 외국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학업·진로 문제를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있다.

숙대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일대일 멘토·멘티를 맺어 외국 학생들의 국내 정착을 돕고 있다. 이 같은 국제화 노력의 결과 숙대는 현재 28개국 197개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2010년 한·중·일 대학생교류사업 시범대학으로 선정됐다.

올해 10월에는 교내에서 아시아·아프리카 교육협력학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숙대는 “이 국제회의는 개발도상국 여성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 인재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안석배 기자
(15. 4·38. 13m)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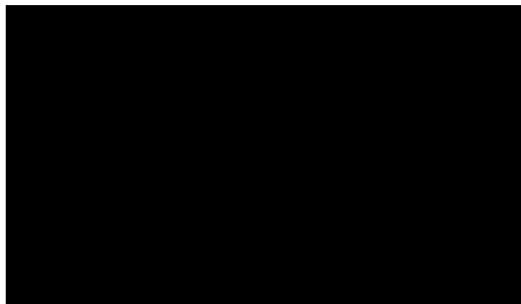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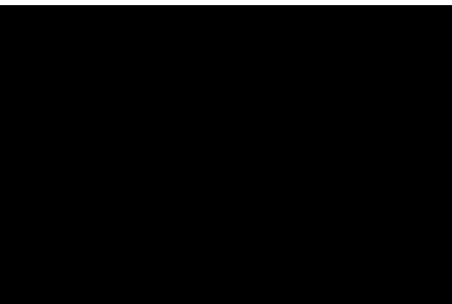
Imp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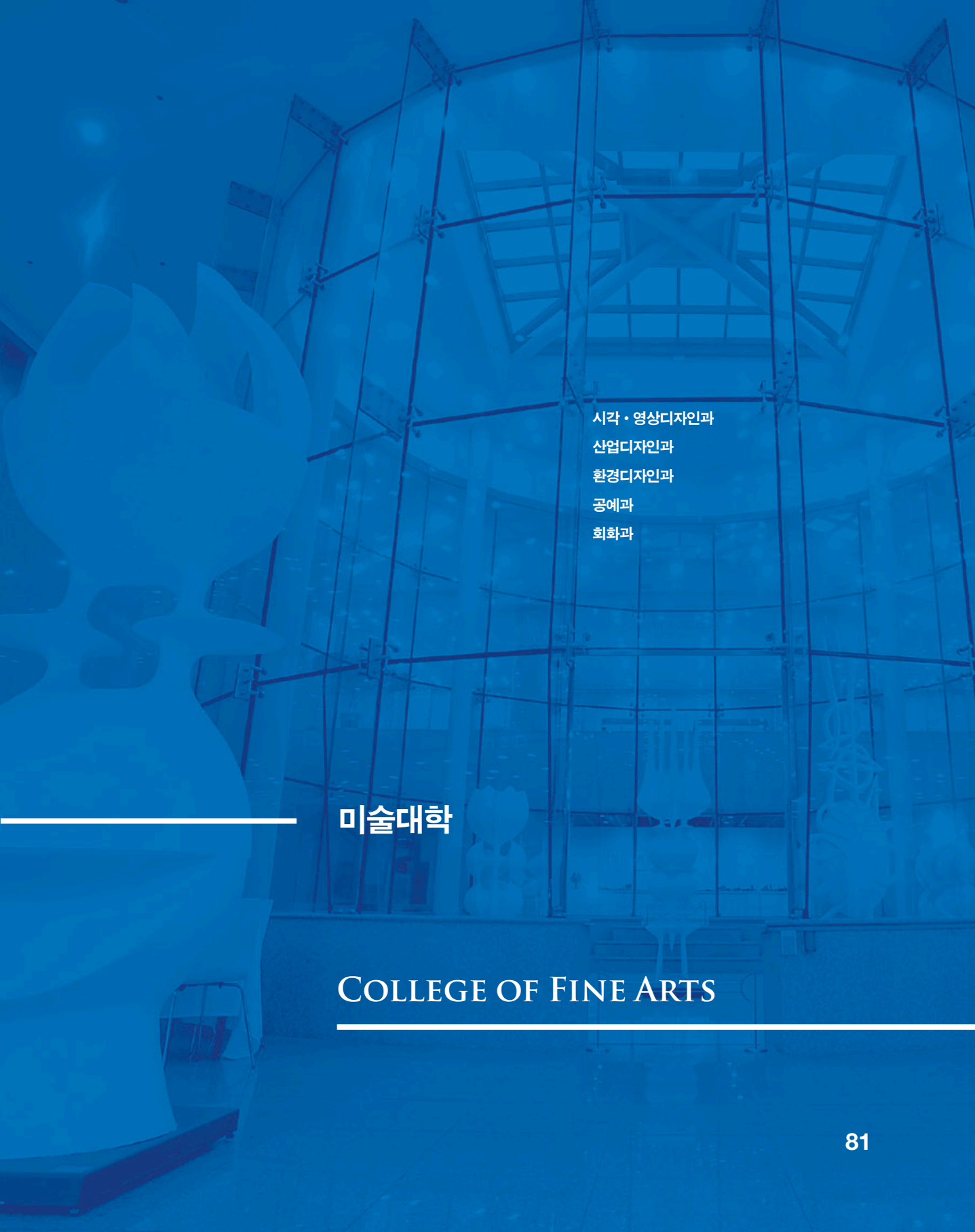


Image



Creativity





시각·영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공예과
회화과

미술대학

COLLEGE OF FINE ARTS

시각 · 영상 디자인과

DEPARTMENT
OF VISUAL &
MULTIMEDIA
DESIGN

시각 · 영상디자인과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다양한 정보, 인간의 의사, 사물의 이미지를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한 창의적 사고와 창조 행위를 배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각물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표현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교과과정을 교양기초과목, 전공기반과목, 전공 심화과정으로 진행하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을 인간적이고도 새로운 시각으로 창조할 글로벌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958 • <http://smvd.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정보를 시각화하여 전달하는 광고 디자인(신문, 영상, 웹 등), 디지털정보 디자인, 인터랙티브 디자인, 사진, 편집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레이션, 캐릭터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시각영상 스튜디오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다음은 트랙에 따라 기초에서 심화까지 교과목을 분류한 것입니다.

전공기초과목 : 애니메이션,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레이션, 웹 디자인 등.

전공심화과목 : 모션그래픽스, 시각영상 디자인스튜디오, 브랜드디자인, CF디자인 등.

● 전공 특별 활동은?

동아리 '캐릭터창업반 imagine O'clock'은 교내 · 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예비 디자이너의 상품을 실제 판매합니다. '일러스트스터디'에서는 현재 활동 중인 동문 일러스트레이터 · 학부생 ·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그림책 연구와 제작을 진행합니다. '타이포그래피반-아밀라아제'에서는 교내외에서 전시를 하며 실전적 경쟁력을 키웁니다. 광고 공모전을 준비하는 '광고동아리'는 국내외의 우수한 수상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탐방단은 해외 우수대학과의 교류를 통하여 글로벌 디자이너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있습니다.

● 내가 졸업하면?

우리 학생들은 졸업 후 기업체 디자인실, 홍보실, 광고대행사, 방송국 등에서 디자인과 아트디렉터로 활동할 수 있으며, 출판사 등에서 근무하거나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컨텐츠 개발자, 인터페이스디자이너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우리 학과가 배출한 선배들 중 국내외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유애로(1974), 김윤주(1987, 2010년 볼로냐 라카치상 수상) 등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김지은(삼성), 고승옥(LG), 인지효(아모레퍼시픽), 서혜승(SBS), 김혜정(Mnet) 등의 선배들은 현장의 유명디자이너입니다.

산업디자인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 환경에서 늘 접하고 사용되며,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도구 및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늘에서 우주선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생활환경에서 사용되고 편리함을 주며, 더 나아가 감성적 효과로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해 주는 도구 또는 시스템 및 서비스의 영역까지 그 범위가 무척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분야는 모든 디자인영역의 중심에 있으며, 디자인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래의 전략적 분야입니다.

산업 디자인과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582 • <http://design.sookmyung.ac.kr/>

첨단 디지털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분야로 디지털 제품, 생활용품, 시스템 가구, 운송기기, 엔터테인먼트 디자인과 같이 물질적 디자인은 물론 사용자경험 디자인, 통합적 서비스 디자인 등 무형적 디자인영역까지 첨단 생활과 문화적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를 개선 및 발전시키기 위해 조형과 테크놀로지의 조화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디자인 능력을 갖춘 산업디자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이론과 실기를 조화롭게 교육합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

국내외 공모전 참여와 전시회 및 학술세미나 발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기업 산업디자인 연구소와 공동으로 산업디자인 산학협동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그 결과가 기업의 디자인 전략으로 반영되고, 전공수업의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또한 실무를 위한 스테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기간 동안 국내외 현장탐방 및 워크숍을 열어 문화적 경험과 국제적 디자인 안목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전공 특별 활동은? ●

국내외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 연구소에서 제품 디자이너, 자동차, 생활용품 디자이너, 팬시, 가구 디자이너, 세트 디자이너, 디스플레이, 사용자경험 디자이너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상품기획, 마케팅 부서에서 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교사로 활동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고, 인테리어 디자인, 웹디자인, 영상 디자인 분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내가 졸업하면? ●

손성은(09/아모레퍼시픽 디자인팀), 황은경(09/이랜드 디자인팀), 허유리(09/사이픽스), 정은지(09/아이애플앤디센터), 최해빈(10/LG전자 디자인), 조유나(10/LG전자 디자인), 이선미(10/이랜드 디자인팀), 하희은(10/이랜드 디자인팀), 박연주(10/이랜드 디자인팀), 이혜미(10/CJ · CGV 디자인팀), 서은숙(10/두산인프라코어)

선배들의 선택은! ●

환경 디자인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DESIGN

환경디자인학과는 건축전공과 공간환경디자인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술대학에 개설된 건축전공에서는 서구 건축대학의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미학적 능력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기를 지도하고, 감성적 · 창의적 자질을 갖춘 글로벌 여성 건축가를 양성합니다. 공간환경디자인전공은 인간이 접하는 모든 공간을 상상하고 기획하여, 실현하는 최신 기술과 감각을 배웁니다. 과학과 예술의 접점에서 조형적 아름다움과 인간의 행위, 삶의 공간에 대한 질적 향상을 고려하며 경험과 감성을 담아내는 물리적 환경을 계획하는 토털디자인 교육을 기본 방침으로 갖고 있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758 • <http://design.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환경디자인학과는 공간으로 정의하는 모든 영역에서 도시디자인까지 다룹니다. 건축 전공에서는 미학적, 디자인적 이론과 실기적 접근, 디지털 사고와 표현, 건축의 역사와 인식, 구조와 시공 개념 등을 공부하여, 디지털건축, 친환경건축, 감성테마건축, 도시 건축디자인 등의 스튜디오들을 통해 과정을 완성합니다. 공간환경디자인전공에서는 주거, 상업, 뮤지엄을 포함한 전시 및 문화공간, 선박내부 같은 특수공간, 브랜드 스페이스 개발과 비일상적 공간디자인으로서의 공간연출, 미디어연출, 무대디자인, 이벤트 환경 디자인의 창의적 제안방법을 실질적으로 공부합니다.

● 전공 특별 활동은?

환경디자인학과는 디자이너 및 학자들 특강, 워크샵, 국내외 답사로 전공 관련 스튜디오 이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현업의 상황을 접하는 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건축전공은 일본 · 유럽 건축기행, 대기업 인턴과정, 전국건축학과 워크샵, 국내외 공모전, 외국대학국제교류 등 특화된 활동으로 국내외 대기업에 취업하며, 외국 명문 대학원과 연구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내가 졸업하면?

공간환경디자인전공 졸업생은 대기업이나 스튜디오 형태의 회사들의 설계팀, 디자인 경영팀, 전시기획팀, 백화점 등의 디스플레이 팀에 진출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국내외 다양한 전공영역에서 실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축전공 졸업생은 건축기사, 건축사 자격증을 실무 후에 취득하여 대기업 건축설계사무소, 대기업 건설업체, 대기업 부설연구소 등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이지연(국보인테리어 국제영업실장), 이옥희(시공테크 과장), 유소임(LG그룹 디자인 및 기획팀대리), 김민선(김현선 스튜디오), 김현진(U-Lab 실장), 김정은(삼우설계 실내설계팀 대리), 송은미(다원그룹 과장), 권수혜(삼성그룹 삼우건축설계), 유동화(현대그룹 현대건축설계), 한상은(LG그룹 창조건축설계), 여효선(간삼건축설계), 오항진(희림건축설계) 등

장학금제도 : 2000년에 부임한 교수들 모임에서 지급하는 GW2000장학금이 있으며, 중국 청화대학교 주최 <국제 학생 창의적 재료 캠프> 지원비를 명승그룹에서 매년 3명에게 지급합니다.

공예과

우리민족은 타고난 예술적 자질과 빼어난 솜씨를 지녔습니다. 특히 이 땅의 여성들이 이룩한 공예문화 자산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공예는 21세기를 이끌어 갈 핵심 문화영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공예과는 공(工)과 예(藝)를 학습하고 이를 전문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적 미감의 세계적인 공예 예술가, 고품격 문화 브랜드를 개발하는 공예 디자이너, 창조적 역량을 갖춘 생활문화 선도자 등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배출하고자 노력합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583 • <http://craft.sookmyung.ac.kr/>

DEPARTMENT OF
ARTS & CRAFTS

공예과는 금속·도자·목칠·섬유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에서는 세부전공과 미술 전 영역을 총체적으로 학습합니다. 2~3학년에서는 기초과정과 세부전공으로 나누어 재료와 기법 등을 연구하는 전공과정을 배우고, 4학년이 되면 창의적 발상과 조형성을 작품으로 기획·제작·전시합니다. 각 학년별로 원어강의가 있고, 또한 2D·3D 컴퓨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실습과 사회 전문 강사 초대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공예과에서는 학년별 과제전과 4학년 졸업작품전, 5월 문화상품전, 11월 눈송이 문화상품전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전공별 글로벌탐방단이나 취업지원사업, 혹은 국내외의 각종 전국공모전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공예과는 2008년 전공리더 특성화 공모전과 취업률에서 교내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전공 특별 활동은?

공예과 졸업 후에는 공예작가, 장신구디자이너, 텍스타일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 세라믹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코디네이터, 디스플레이어로 진출 가능합니다. 큐레이터·문화상품기획·M.D.분야로도 진출하는 길이 있습니다. 교직이수과정을 거치면 2급(디자인·공예)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대학교수, 공예 강사, 중등 특활교사로 진출 가능합니다.

내가 졸업하면?

교직에 김재영, 김설, 박현영(교수), 김성희(교장), 박서연(교사)등, 공예작가·디자이너로는 문순원(길공방), 신진라(한국전통공예전수관), 여경란(여기담기), 조민지(한샘) 등이 있습니다.

선배들의 선택은!

장학금제도 : 오천학장학금·구원장학재단장학금·솔트팬장학금 등을 통해 공예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회화과

DEPARTMENT OF
PAINTING

우리 회화과에서는 주체적인 시각을 통해 동·서양화에 대한 매체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다양한 회화기법을 연구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동·서양화의 장르 구별이 모호해진 현대 미술에 호응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축적된 미술이론을 바탕으로 실습과 연구를 통해 작품에 대한 올바른 비평적 시각을 키우고, 창작 능력을 심화시킵니다. 특히 우리 학과에서는 동·서양화의 통합 운영을 통한 주도적 학습을 진행하고 있고, 숙명 '블루리본 프로젝트'에 맞추어 원어 프레젠테이션과 글로벌 역량 개발, 인문소양 강화 등을 위한 6개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658 • <http://fineart.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1, 2학년 과정에서는 실기와 이론을 통해 동·서양 미술의 전반적인 기초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두 분야를 함께 접하면서 재료·기법 등에 대한 이해력을 높입니다. 3학년 과정에서는 전공에 대해 심도 있는 실기를 하고, 4학년이 되면 졸업전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4년 과정의 창작 능력과 실기 기량을 평가받습니다.

● 전공 특별 활동은?

우리 회화과에는 많은 스터디가 있습니다. 'Fineart 현대작가 스터디,' '오픈 크리티크 스터디,' '전공특화 스터디,' '인문소양 강화 스터디,' '누드 크로키 스터디' 등이 그것들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문화예술전문인이 되기 위한 '작가 멘토프로그램'과 미술관·박물관·전시회 감상과 영어토론을 하는 '전공 멘토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 특별활동으로는 학기마다 운영하는 과제전과 기획전이 있으며, 방학을 이용한 외부 기획전시도 있습니다.

● 내가 졸업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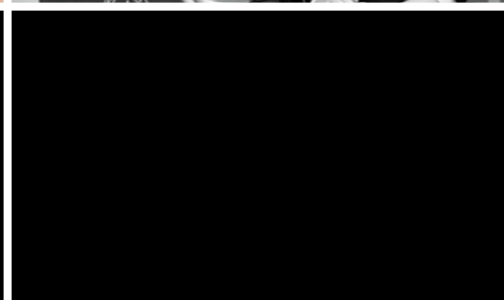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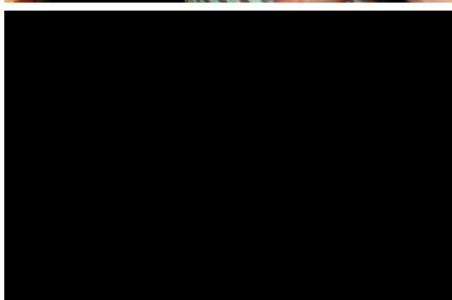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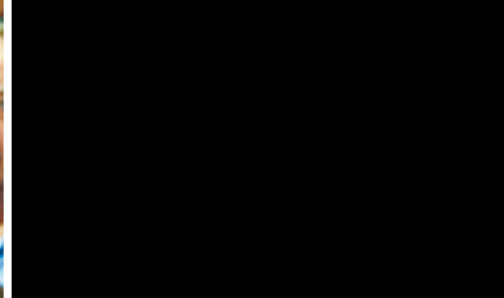
회화과를 졸업한 후에는 우선 창작 활동에 전념하는 작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또한, 옥서니어이나 미술관 운영 등의 아트매니지먼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어, 무대디자인, 미디어아트, 광고, 문화콘텐츠개발, 회화작품 복원·수리에 관한 연구 등의 길도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 교사나 대학교수 등 교육계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전공의 순수취업률은 100%로 나타나 있습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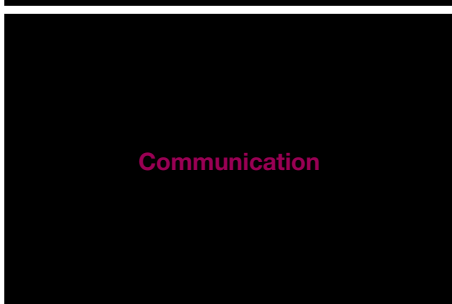
우리 회화과의 선배들 중 프리랜서 작가로 박선경(뉴욕재미작가), 손진아(작가), 김주연(재불작가), 최혜정(판화가), 이경하(패션 디자이너), 박지혜(무대감독) 등이 계시고, 문화계에는 이남선(마담포라 큐레이터), 최소연(점느미술관 관장), 김명희(동화작가), 조정경(현대백화점 디스플레이실), 이향숙(경상도립 미술관 큐레이터) 등이 계십니다.

장학금제도 : 회화과 동문 단체 장학금으로는 숙원회장장금, We-Now장학금이 있고, 아시아프 등 국가급 공모전을 통해 갤러리 창작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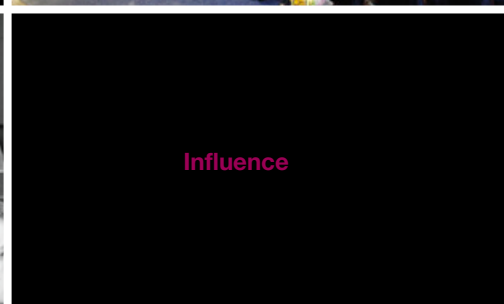
Journ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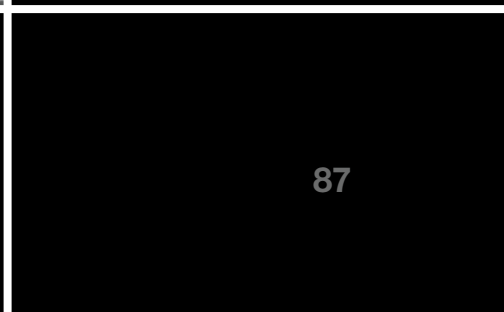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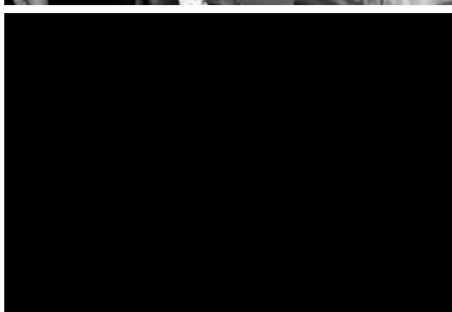
Communication



Audience



Influ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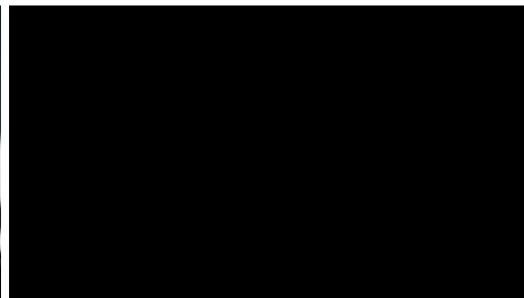
Globalization



Cooperation



Innovation



Establishment



글로벌협력전공
양트러프러너십전공

글로벌
서비스학부

SCHOOL OF GLOBAL SERVICE

글로벌 협력전공

GLOBAL
COOPERATION
MAJOR

글로벌협력전공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사회의 새로운 직무영역에 도전할 국제업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전공은 MBA급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교육과정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재학 중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며, 졸업 시에는 불어나 스페인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중언어능력을 가진 국제업무 영역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실무적 학문입니다. 이 교육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외교분야(국제기구), 경제분야(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 방송분야(글로벌미디어 영역)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2077. 7496 • <http://global.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는 많은 현상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학과에서는 실무 활동에 필요한 글로벌 정치·경제·경영 영역들을 주로 탐구합니다. 다양한 교과목(글로벌기업환경, 글로벌경력관리, 개발원조와글로벌협력, 선진국의사회와글로벌시민의식, 글로벌투자과다국적기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생각의 출발점은 전 세계이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을 공부하는 것과 함께, 여러 언어 구사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 전공 특별 활동은?

우리 전공의 특별활동 'SM-PAIR'는 하버드대학과 교류하며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교내 리더십그룹인 '엠베서더'와 '통역봉사단'으로 활동할 경우 국내외 통역관련 행사에 참가해 자원봉사를 합니다. 또한 스탠포드대학 서머캠프 참여 특전이 부여되고, (선발규정에 의거) 1회에 한해 외국교환학생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경력을 쌓기 위해 재학생들은 2회에 걸쳐 해외인턴이나 봉사활동에 관련한 비용을 대학으로부터 일부 지원받을 수 있고, 기타 전공 내 외국학생들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기획해 볼 수 있습니다.

● 내가 졸업하면?

국제기구나 국내외 다국적기업에 진출하거나 주한외국대사관이나 민간외교기관에 진출해 국제사무직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글로벌미디어 분야에 진출하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전문성을 더 쌓기 위해 관련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우리 전공의 선행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국제기구연계전공과 국제관계대학원 졸업생들이 진출한 직무영역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교부 특채공무원, 대사관, 글로벌 미디어업체, 글로벌 다국적기업, HSBC·Citi Corp 등의 국제금융사, Amnesty International·UNESCAP 등의 국제기구 등입니다.

장학금제도 : 학교 성적 장학금과는 별도로 상위 15명에게 특별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추가로 다양한 글로벌 활동 비용이 지급되며, 상위 10위 이내인 학생에 한해 Stanford Global Entrepreneurship Program에 파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앙트러 프러너십전공

ENTREPRENEURSHIP
MAJOR

앙트러프러너십전공은 넉넉한 자본이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제 창업하기 위해 2010년에 태어난 학과입니다. 우리 전공에서는 특히 여성 특유의 감성과 휴머니즘에 기반해 창의적인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적합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앞서는 글로벌 마인드 배양을 위해 재학 중 주요 전공과목의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하며, 급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본어나 중국어 중 하나를 제2외국어로 습득해야 합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2077. 7578 • <http://global.sookmyung.ac.kr/>

앙트러프러너십전공은 무엇보다 경영과 관계있습니다. 우리 전공의 교과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앙트러프러너십개론, 글로벌기업환경, 신제품개발전략, 신서비스창출전략, 앙트러프러너세미나, 사업계획서작성및발표, 연구방법론(주제언어및인과관계, 과학적계량분석 방법), 창업마케팅, 창업자금관리, 프랜차이즈, 사회적기업창업, 벤처성장전략, 성장전략관리, 글로벌화와앙트러프러너십, 지적재산과국제관계, 창업과정부정책, 사내벤처 등. 또한 국내기업 인턴십(진로 탐색 단계, 경력 개발 단계)과 해외기업 인턴십(역량 향상 단계, 역량 고도화 단계)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울러, 아시아 시장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시장에서 능력 있는 인재가 되도록, 영어와 함께 제2외국어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

교내 앙트러프러너십 관련 특별 활동은 전국 주요대학의 사회적 기업 창업동아리인 'SEN'(Social Enterprise Network)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회적 기업 뿐 아니라 일반 창업에 대한 이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 내에서는 일반 창업이나 사회적 기업 창업에 대한 제반 이슈를 스터디하는 것은 물론, 좋은 아이템을 발견하면 앙트러프러너십 센터와 협력하여 실제 창업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전공 특별 활동은? ●

첫째는 재학 기간 동안 유망한 아이템을 발굴해 실제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면 학업을 계속하며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지원합니다. 둘째는 실제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신사업 기획팀 같은 부서에서 신제품 개발이나 신서비스 창출과 관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를 바탕으로 주한경제단체(주한 미상공회의소, 주한 EU상공회의소) 등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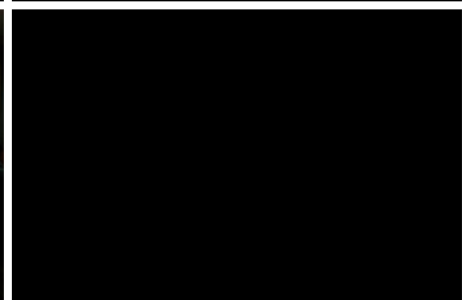
내가 졸업하면? ●

장학금제도 : 학교 성적 장학금과는 별도로 상위 15명에게 특별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또한 재학 중 창업자금 500만원이 지급되며, 상위 10위 이내인 학생에 한해 Stanford Global Entrepreneurship Program에 파견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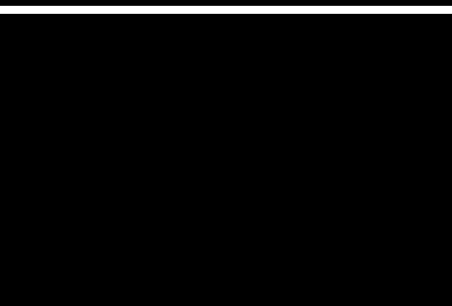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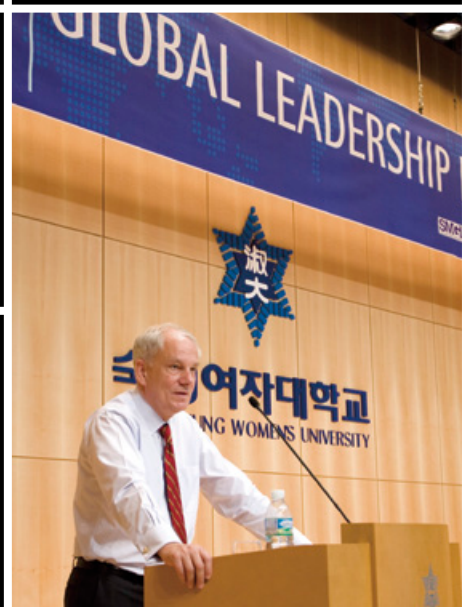
Langu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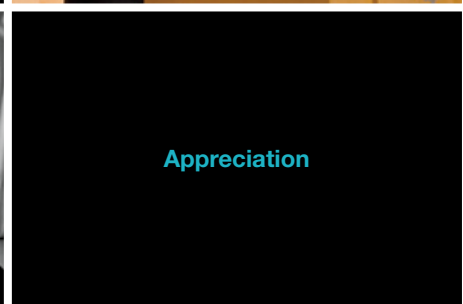
Literature



Criticism



Appreciation



영어영문학전공
테슬(TESL)전공

영어영문학부

SCHOOL OF ENGLISH

영어영문학 전공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MAJOR

1948년 설립되어 오랜 전통을 지닌 우리 영어영문학부는 국제화시대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영어 능력을 키우고, 영미문학 · 영어학 · 영어교육학 · 통번역학의 인문적 소양을 갖춘 전문화된 지성인을 양성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부 전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유롭게 교과목을 선택하여 폭넓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학문적 능력과 관심사를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새로 TESL전공을 신설하여, 영어를 외국어로서가 아니라 제2언어로 학습하고 가르칠 수준을 갖춘 교육인력을 양성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321 • <http://english.sookmyung.ac.kr/>

●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 학부는 주로 영어학과 영문학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필요한 영어 능력을 쌓도록 심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1세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유산들도 공부합니다. 따라서 중세시대의 영어영문학부터 시작해 현대 영어영문학까지 포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르네상스영문학을 배우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현대영미소설이나 영미SF판타지문학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 쌓은 지식을 토대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처할 영어 실력을 갖춘 여성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전공 특별 활동은?

영어영문학부에는 영문학부 학생회를 비롯해, 영어원어연극반인 'The Flames', 영문학을 연구하는 학생동아리인 'E. Litt. S', 영문학부 기도모임인 '여디야', 번역동아리인 'SWELTS' 등이 있습니다. 이 동아리들은 우리 학부가 얼마나 다양하게 전공의 특성을 살리는지 말해 줍니다.

● 내가 졸업하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영어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진로는 아주 넓게 열려있습니다. 졸업생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전통적인 영문학 관련 학계는 물론, 교육 · 외교 · 언론 · 출판 · 금융 · 관광 · 국제기관으로도 두드러지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TESL 전공은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선배들의 선택은!

우리 학부의 선배들은 정치 · 경영 · 교육 ·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박동은(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정춘희(동아일렉콤미주본부장), 이경자(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자(한국 대표 영상번역가), 임영신(하나 UBS 자산운용 인사본부장), 장기운(서강대 영문과 교수) 등의 선배들이 그 예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사회의 여러 곳에서 훌륭한 주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제도 : 전공 동문장학모임인 반디회에서 매년 재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TESL전공은 국제화시대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영어교육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영어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1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1994년 국내 최초로 TESOL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그 이래로, TESOL 석사과정 · 어린이영어전문교사 과정 · 국가공인 MATE 시험이 생겨나, 아시아 최고의 TESOL 프로그램 운영 대학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역량이 TESL학부전공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뿐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에서 제공하는 영어교육프로그램의 위상과 내용을 공고히 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영미권의 영어교육 접근법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영어교육 전문인재들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321 • <http://tesl.sookmyung.ac.kr/>

테슬(TESL) 전공

2011학년도 신설전공

TESL MAJOR

TESL전공은 언어와 인간, 사회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영어교육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교육의 핵심분야 뿐만 아니라 연관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TESL전공학생은 모든 전공과목을 100% 영어강의로 수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문적인 영어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영어구사 능력자체에 초점을 맞춘 영어능력과목들도 마련되어 있어서 최고의 영어구사력을 갖추고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학 · 석사 연계과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TESOL 대학원, 국제관계 전공대학원, 시각영상디자인대학원 과목들을 통해, 영어교육 연관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가 되는 전공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TESL 전공은 재학 중 다양한 장단기 해외연수를 비롯하여 해외대학과의 학점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본교에서 받은 교육과 경험을 적용, 응용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공 특별 활동은?

TESL전공에서 쌓은 전문지식과 영어능력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영어교육현장에서 전문가로서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TESL전공은 학사학위 뿐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좀 더 세분화된 영어교육분야의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연관분야와의 학 · 석사 연계과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원이나 교사로 활동할 수 있고, 영어교재 개발, 영어교육 프로그램, 교과과정 개발, 영어평가, 영어정책, 영어능력시험 개발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졸업하면?

TESL전공은 신설 학과이기 때문에 아직 졸업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초이며 최고인 본교 TESOL 프로그램이 이미 사회적 위상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 전공은 영어교육의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며 혁신적이고 전문적인 글로벌 TESL 인재를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영어교육의 각 영역과 연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선배들의 선택은!

장학금제도 : TESL 전공은 블루리본 장학금, 동문회반디회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입 자율화, 대학 선진화 3년을 말한다

한 영 실 숙명여대 총장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은 "21세기 총장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용기"라고 했다. 웅변한 중소기업 못지 않은 규모의 예산을 갖고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 대학 최고경영자(CEO)에겐 선택을 강요받는 중요한 순간들이 적지 않고, 이때마다 총장의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 공중과 방송의 정보 관련 프로그램에 식품영양 분야 패널로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탄 '스타 교수' 출신인 그의 용기가 심본 발휘된 영역이 여대 최초의 학군단(ROTC) 설치다. 여성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 ROTC 유치에 용기를 쏟아 부은 것이다. 한 총장은 여성 리더십에 대해 특히 관심이 많다고 했다. 여성 리더십은 대학 교육에서 길러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여성 리더십과 관련한 과목들이 숙명여대에 유독 많은 것도 이때부터다. 한 총장은 본보 주최로 지난해 열린 2010 세계여성컨퍼런스에서 외국 유수의 여성 리더들 앞에서 한국 여성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여대 총장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인터뷰=김진각 편집위원 kimjg@hk.co.kr



"여성시대에는 여성의 책임 필요... 여대 첫 ROTC 용기 냈죠"

-여대가 왜 ROTC를 유지했을까요. 단순히 여군 자원 확보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민파위시대, 여성시대, 소프트파 위시대'가 열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쟁으로 그런 시대를 열려면 여성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 아이 많던 시대엔 고생하는 부모 밑에서 여성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안보교육도 물론 받았구요(교편을 뜻한 다). 국민 의무에 대한 태생적인 소명의식이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한 집에 아들 하나 있기도 힘든 시대 아닙니까. 병역의무를 해야 하는 인구의 절대 숫자가 줄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국가로 남아있어요. 이럴 때 여성이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전쟁은 첩보전이나 심리전이고 정보기술(IT)전이 라고 여기고 있어요. 여성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들이지요. 남성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용병(勇兵)을 데려올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여성도 국방의무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ROTC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물론 여대생들이 결혼 후 가정과 자녀를 갖는 경우도 염두에 뒀어요.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보에 관해 여성들의 인식이 자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성도 병역의무와 안보를 도외시해선 안 된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 생각이요. 북한의 여군이 우리의 30배를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북한은 전체 군인 중 15%가 여군이지만 우리는 3.3%에 불과해요.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가만히 있었어요."

-다른 여대도 ROTC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나요.

"여군 자원 확보는 안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 ROTC 설치를 원하는 여대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해요. 숙명여대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무게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최근 숙명여대 총장실에선 '출정식'이 열렸다. 10일부터 3주간 일정으로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입소하게 될 학생들이 신고를 하러 나타난 것이다. "뿔아놓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복장을 갖춰 입고 온 학생들을 보니 그렇게 든든할 수 없었어요. 개교 104년만에 전투복 입은 여성 30명이 총장실에 들어선 것은 처음이지요. 감격했어요."

한 총장은 25년의 교수 생활을 하면서 여대생들한테서 이런 '형량한 눈빛'을 마주한 경험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예비 여성 군인들에게 단 한마디만 했다. "4성(星) 장군 한 명만 나와달라"고.

“한 집에 아들 하나도 힘든 요즘 병역의무에 여성도 나서야
출정식 때 제자들에게 당부
4성 장군 한 명만 나와달라고...”

-대입 전행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대입자율화가 벌써 4년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작 자율화는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입학사정관제도 구설에 올라 있습니다.

"대입 자율화와 입학사정관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긴 호흡을 갖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시행착오가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도 자체는 이상적인 제도라고 봐요. 제대로만 된다면 신뢰를 쌓을 수 있어요. 시골에서 부모 농사일을 도우며 공부한 아이들과 도사에서 학원 등 사교육 혜택을 받으신 자만 아이들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 순 없어요. 숙명여대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입학한 시골 출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필요했어요. 지역 핵심인재 멘토 교수들 구성했지요. 교수들이 일대일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교수들의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다른 대학에선 입학사정관제로 좋은 사람 출신 학생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영어에 약간 뒤처지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 영어 그룹을 따로 만들어 교육시키고 있는데, 효과가 만점입니다. 비교적 입학사정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훌륭한 입학사정관을 두는 것이라고 봐요. 공정하고 안목 있는 입학사정관을 선발하고 교육시켜야 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좋은 입학사정관을 모실 수 있어요. 재장교도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 총장은 입학사정관 선발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다. “대교협이 입학사정관을 교육하고 선발하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기로 해 기대가 크다”고 말한 것도 수준 높은 입학사정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또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좋은 학생들의 자질이 나 수준이 일반전형 합격자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입학 때보다 졸업 때 성적이 얼마나 향상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실력 좋은 학생들이 들어와도 결국 수학 영어 문제 몇 개 더 맞히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고 봐요. 대학 와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영어 수학 점수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어려운 형편에서 의지를 갖고 공부한 학생들은 또 다른 능력이 있어요.”

-대학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하면서 정부 돈을 받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정확한때까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찾아가지 않아도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늘려 있는데 굳이 전국 곳곳을

돌며 면담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 등에 예산이 필요하고)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봐요. 안락이 돼 학교 현장의 기록 등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달라지겠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입 관련 업무를 넘겨받은 대교협에 대해 말들이 많습다. 화원 대학을 입장을 중시하는 것보다 정부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교협이란 조직이 여러 대학들이 낸 화비로 운영되는 집단이다 보니 불만도 있고 공감대 형성이 어려우게 사실입니다. (총장들이) 다들 바쁘다 보니 한 목소리를

“교수들이 1대1 멘토 역할 입학사정관제 성공적 운영 자부 학생들 어려운 상황 감안해 등록금, 고민 끝에 올해도 동결”

내기도 힘들어요. 이사회 역할이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인정해요. 여분을 취합해 가야 하는데 그런 과정 과정이 쉽지 않아요.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해 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잡음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외국 대학 중 벤치마킹 할 만한 대학이 있나요.
“직지만 강한 대학인 미국 다트머스대를 꼽고 있어요. 입학이 어렵고 학점 같은 것도 없어요. A학점 받으려고 원론적인 내용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다트머스대는 학생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숙명여대도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있어요. 다트머스대 같은 대학을 만들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재정문제에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요. 기여입학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때가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여입학제를 하려면 사회가 더 성숙해야 해요. 외국 유수 대학의 경우 기여입학제가 흔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선 기여입학제로 입학하면 다른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겁니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강해요. 부자를 인정하고 존경할 부분이 있으면 존경하고, 재산의 사회 환원 등도 색안경까지 덮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회가 우선적으로 조성돼야겠지요. 기여입학제 여건이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해요.”

-등록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동결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다. 지난 2년간 등록금을 동결했고 교수 월급도 올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긴축재정을 한 것이지요. 등록금 동결은 학교가 해야 할 일들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결과로 나타나습다. 학교가 많은 일을 해야 학생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게 안되니까 갑갑해요. 하지만 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요. 학부모와 학생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한 총장은 총장들 사이에 “할 말은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문에 괜한 오해를 산 경험도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一鍼)했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오래 생각한 뒤 신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만든 것은 쉽게 바꾸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도 필요해요. 정책이 매년 바뀐다면 학교 환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은 농사처럼 길게 보고 해야 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교육은 진득한 농사꾼이었다.

정리=박철한기자 karam@hk.co.kr
사진=신상순기자 sssshin@hk.co.kr



SCHOOL OF
COMMUNICATION & MEDIA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는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관련 이론과 실무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을 통해, 미디어 산업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우리 전공에서는 신문 · 방송 ·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디지털미디어콘텐츠를 기획 · 제작해 미디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그래서 디지털미디어 시대를 주도할 창조적 여성 미디어 리더를 배출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미디어 저널리즘', '영상콘텐츠' 3가지 전공트랙을 신설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가장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전공사무실 및 문의 • 02. 710. 9293 • <http://comm.sookmyung.ac.kr/>

미디어
학부

SCHOOL OF
COMMUNICATION
& MEDIA

미디어학부는 '학부핵심과목'과 함께, 세 가지 트랙별로 최적화된 과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부핵심과목'은 이론 과목과 더불어, 전공 관련 공통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트랙은 뉴미디어분야에 특화된 교과과정으로, 뉴미디어 비즈니스 · 엔터테인먼트미디어마케팅 ·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저널리즘' 트랙은 디지털시대의 저널리즘을 위한 분야로, 취재보도 의기초와심화 · 디지털저널리즘 · 방송진행과아나운싱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콘텐츠' 트랙은 방송영상분야 제작을 위한 분야로, 방송영상제작 I · II · III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

미디어학부는 학생들의 그룹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내대학 최초의 인터넷방송국으로, 미디어학부 전공학생들이 최첨단 디지털장비를 이용해 방송콘텐츠를 직접 기획 · 제작하는 'SM-Net'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 활동 모임으로, 주요 사회이슈에 대한 분석과 글쓰기 훈련을 통해 언론인으로서의 기초적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ISSUE', 언론사 진출을 희망하는 4학년 및 졸업생들의 체계적인 언론 고시 준비반 '명언재' 등이 있습니다.

전공 특별 활동은? ●

미디어학부 졸업 이후, 다양한 사회 진출의 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론매체의 기자, PD, 아나운서, 구성작가, 카메라맨 등을 포함해, 주요 포털미디어 같은 인터넷 산업분야, IPTV와 케이블 TV 같은 뉴미디어 산업분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 기획이나 경영 요원,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기업체 언론기획 요원, 사내 방송 요원, 인터넷 방송사 PD나 기자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졸업하면? ●

활발한 활동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한영룡(2010, MBC 예능 PD), 권한울(2010, 매일경제), 박효정(2010, OBS), 강윤주(2009, 한국일보), 강은지(2009, 동아일보), 권지혜(2007, 국민일보), 노정연(2007, 경향신문), 배현진(2007, MBC 아나운서), 송진원(2008, 연합뉴스), 신은경(2009, 연합뉴스포맥스), 양선영(2008, 네이버 편집에디터), 김현진(2009, 제일기획).

선배들의 선택은! ●



SMU Information

학사제도

국제교류프로그램

장학금안내

리더십그룹 및 동아리

캠퍼스 안내

Academic Affairs Information

숙명의 학사제도 안내

1. 전공선택

4학기 또는 5학기에 복수/부/연계전공을 신청 및 변경할수 있습니다. 단, LCB외식경영전공, 약학부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선택할수 없고, 사범계 학과와 연계전공은 부전공으로 선택할수 없습니다. 복수전공 이수인원이 과다한 전공의 경우, 성적평점에 따라 지원자격이 제한 될수 있습니다.

2. 교직과정안내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 학부 중 교직과정 이수 희망자는 재학 중 이수할 전공을 선택하고 2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2학기 재학 중 지정기간(통상 7월경)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전공 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범계 학생의 교직이수

- 사범계 학과(교육학부, 체육교육과)는 재학생 100%가 교직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학부 학생은 교직이 설치된 전공(아래표 참조)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해야 교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비사범계 교직과정 설치 학과/전공별 인원과 교원자격증 종류

3. 영어 교양필수 이수 면제 제도

매 학기 짝수 월에 실시하는 MATE 정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MH, Moderate High)등급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졸업여건 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영어 교양필수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이수면제 신청 대상 과목 및 면제 기준

이수면제 대상 과목	학수번호	면제기준
영어로론과발표	21000082	MATE Speaking Moderate High 이상
영어쓰기와읽기	21000083	MATE Writing Moderate High 이상

방법 : 매학기 초 신청 기간 내에 '이수면제신청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교양교육원 홈페이지 gei.sookmyung.ac.kr에서 확인





Sookmyung
Leadership



4. 학석사연계과정

5~6학기 수료자로서 5학기 수료/재학 중인 자는 98학점(약대107학점) 이상, 6학기 수료/재학 중인 자는 119학점(약대130학점) 이상 취득하고, 5/6학기까지의 총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가 학·석사 연계과정에 합격하면 6~7학기에 대학원 석사과정 교과목을 6~9학점 이수(학기당 6학점)하여 학사와 석사과정을 1년 단축시키는 제도입니다.

5. 전과

전과 여석은 11월 초에 발표하며, 전형은 매년 11월중에 실시합니다.

제2학기 재학, 3/4학기 재적(휴학포함), 5학기 휴학생 중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학과·학부 입학정원 20%이내(사범계 학과는 전과, 재입학, 편입, 정원외를 포함하여 입학정원의 10% 이내, 약학부는 전과 선발 없음)의 여석 범위 내에서 학과·학부별 전형을 거쳐 재학 중 1회에 한해 전과가 허용됩니다.

6. 학기우등생

매학기 각 학부/학과, 학년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최우등생' (총장상), '우등생' (학장상)으로 표창하고 학적부에 기재합니다.

매학기 P/F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15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4학년은 P/F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과목 성적에 F(P/F의 F를 포함)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학기우등생은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성적만으로 선발합니다.

7. 졸업우등생

졸업우등생 : 본교에 8학기 이상 등록한 전기 졸업자(조기 졸업자 포함)로서 학교생활에 성실하고 전체 이수과목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하며, 학적부에 기재합니다.(단과대별 수석)

졸업성적우수상 : 졸업시 총평점평균 3.70이상인 학생은 학적부에 졸업성적우수자로 기재합니다.

Global Sookmyung Semester Abroad Program

숙명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복수학위제 Dual Degree Program

우리대학에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복수학위제를 시작하였으며, 미국, 아일랜드, 일본, 중국, 호주, 프랑스 지역의 대학과 협정을 맺어 글로벌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복수학위제는 우리대학에서 2년, 자매대학에서 2년씩을 수학한 후, 양교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복수학위제 참여 기간 동안 본교 및 상대교 재학생들과 동등하게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월트 디즈니 인턴십 프로그램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FSU)의 International Center와 Division of communication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FSU에서 진행하는 Intercultural Communication Program에 참가형 관련 수업을 수강하고 이후, 8개월간 디즈니 월트(테마파크, 호텔 등)에서 유급 견습인턴으로 주당 최소 30 시간을 근무하며 업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Sookmyung Global Honors Program at Stanford

전공별 성적 최우수자 10명이 선발되며, 본교에서 항공료 및 수강료를 지원받아 스탠포드에서 개설되는 여름학기 과목을 스탠포드 대학 학생들과 수강하고, 본교 학점으로 인정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업 이외에 구글 본사나 애플사 등의 기업 방문 및 기타 다양한 문화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집시기: 매년 2월 / 파견시기: 하계방학 중(8주)

Sookmyung Global Honors Program at Australia

각 전공별로 5~7학기 학부 재학생 중 전공별 누계평점 석차가 1,2위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본교의 지원을 받아 호주의 Deakin University, Griffith University에 두 팀으로 나뉘어 파견되





어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Intensive General English Program 및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

모집시기: 10월~11월 / **파견시기:** 동계방학 중(5주)

UC Berkeley Summer Program

각 전공별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고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온 사회공헌 활동 우수자 재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하계방학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UC Berkeley의 Summer Program에 파견하여 UC Berkeley 학생들과 함께 수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시기: 매년 2월~3월 / **파견시기:** 하계방학 중(8주)

숙명국제여름학교 (Sookmyung Int'l Summer School : SISS)

여름학교동안 운영되는 교내 국제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의 세션으로 나누어져 진행이 되며, 재학생들의 국제환경 적응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개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SISS Session 1

신청시기: 매년 5~6월(하계방학 계절학기기간과 동일)

프로그램 진행시기: 하계방학 계절학기 중, 매년 6월 4째 주~7월 3째 주(4주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을 우리대학 캠퍼스로 초청하여 하계방학 계절학기동안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개설합니다. 본교 재학생 및 국내외 자매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개설함으로써 재학생들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적 수준의 질 높은 강의를 듣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SISS Session 2

신청시기: 매년 5~6월(하계방학 계절학기 지원기간과 동일)

프로그램 진행시기: 매년 8월 1째 주~3째 주(3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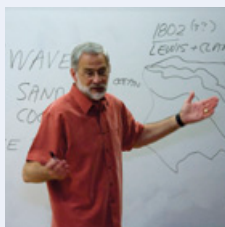
환경 등의 특정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 기획된 단기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학생 및 본교 재학생이 우리대학 캠퍼스에서 강의, 연구, 기관탐방 등의 다양한 학습경로를 통해 교육을 제공합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재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과의 교류 및 문화학습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12년 SISS 일정

SISS 1 : 2012년 6월 25일 ~ 7월 20일

SISS 2 : 2012년 8월 1일 ~ 8월 22일

SISS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우리대학 하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동안 계절 학기와 동일하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Global
Sookmyung

비전과 목표를 실현 할
숙명의 명품인재를 지원합니다.

73.5% 재학생 장학금 수혜율 (2011학년도 기준)

신입생 장학금

순헌장학금
블루리본장학금
청송
백로
성적우수
명재
글로벌서비스학부
특성화및신설전공
역량개발
숙명리더십
청파
장애우
숙명가족
숙명충동문화장
외국인학생
세계지역핵심인재

재학생 장학금

우수
외국인학생성적우수
세계지역핵심인재
고시
고시반지원
숙명면학장려
새빛
장애우
자기계발
국가근로
숙명
ROTC
숙명봉사
숙명리더십그룹
숙명창업육성
국내문화탐방
공모전
숙명글로벌인재
숙명창조인재
숙명행복나눔
숙명공로
숙명Honors
국가유공자
우수학과추천
청파기금
동문
기탁
글로벌인재양성

외부장학금

*** 장학법인, 공공기관, 재단 등
100여개의 외부기관 지원**
우덕재단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두울장학재단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신라문화장학재단
유한재단
정수장학회
송파재단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엘트웰민초
덕영재단 금강장학재단
서암여성지도자육성장학금
미래에셋해외교환
삼일교회 등

(대 학 원)

조교
우수동문
학석사연계과정
숙명글로벌인재
외국인학생
학생회
연구지원
동문지원특별
세계지역핵심인재
숙명창조인재
국내문화탐방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동시에 배양하는 동아리 및 그룹 활동,
배움의 또 다른 기회이자 학창생활의 활력소입니다.

재학생 리더십 그룹 및 동아리

리더십 그룹 현황

단체명

학사모니터
폴라리스
숙명옴부즈맨 BLOOM
숙명니비스응원단
숙명장학생봉사단
숙명의료봉사단
숙명SIWA봉사단
숙명지식봉사단
숙명통역봉사단
숙명환경봉사단
숙명스포츠봉사단
숙명글로벌비디그룹 U.R.I
스타티스
숙명엠베서더
숙명통신원
IT's U
SNOWexchange
ABLE
스마티어
숙명문화봉사단
숙명한국어교육봉사단
투윈스
아이비스
청
숙명문화교류단
숙명역사알리미
숙대신보
숙명타임즈
교육방송국
SM-net
헤드라인
HUMANITAS
숙명과학교육봉사단
FROM
사과나무
SCOL
Future CEOs of Korea
나르샤
리코리스 엔젤
숙명아트엠베서더

주 활동내용

학사불편사항파악/학사관련 개선사항 제안
고교생 대상 입학홍보 및 상담
숙명인 만족도 상상을 위한 행사 기획진행
교내외 응원공연봉사, 응원제 개최
장학금 홍보&안내, 외부봉사
연계병원 내 환자안내/보조
한인입양아캠프 등 해외봉사 개최
소외계층 교육봉사
교내외 통역봉사(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에너지절약, 클린캠퍼스 홍보
스포츠를 통한 저소득 사회계층 봉사
교내 외국인 유학생 정착 및 교육지원
동문 인적자료 확인, 발전기금모금 행사지원
숙명여대 홍보대사, VIP의전활동, 캠퍼스투어 안내
월간뉴스레터, 틴스숙명 제작/발송
숙명IT서비스 모니터링&제안/이용홍보
TEDx활동(번역, 강연개최, 영상관리, 홍보)
리더십교육/행사지원, 리더십레터 제작발송
도서관 이용자대상 봉사, 어린이책읽기 교외봉사
박물관 전시안내&지원
외국인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취업경력개발원 멘토프로그램 지원
취업프로그램 지원, 뉴스레터 제작
숙명 토론문화정착지원/토론대회보조
글로벌 문화교류 콘텐츠 개발, 협력모델 구축
교사(敎史)자료 수집 및 숙명역사&정통성 계승
주간 학보 제작, 여고문학상 개최
월간 영자학보 제작
교내방송제작, 주요행사생중계
인터넷 방송국 운영, 주요행사생중계
주간 영어 원어뉴스 제작
문과대학 활동 봉사
초종교 대상 과학교육 봉사, 단과대학 활동 봉사
생활과학대학 활동 봉사
해외봉사, 단과대학 활동 봉사
법과대학 활동 봉사
경상대학 활동 봉사
재능기부연주 봉사, 음악대학 활동 봉사
약학대학 활동 봉사
미술대학 활동 봉사

동아리 현황

공연예술분과

숙풍
설현애
설렘
반극회
DESTINY
BSL
맥스
소피아
코드 BLUE
숙명합창단

사회분과

UNSA
H.A.N.A.
숙명앰네스티
숙명로타랙트
아름터
PTPI
호우회
RCY
ICCUS
S.U.A.

종교분과

IVF
JOY
예수전도단
CCC
CAM
글라라
불교학생회
한기연
원속회

체육분과

배구동아리
SC숙명
FC숙명
민턴럽
스노홀릭
설화연
검도부
원화
숙명스키팀
아브락사스

학술분과

AIIESEC
한국대학생경제학회
SM-PAIR
영동한사람들
송우
SMDC
자본주의연구회
부자동아리
쿵
자연과학연구회
하늘섬
금융경제연구회
SOLUX
한국상경학회
한국유네스코학생회
SFA
형설지공

전시예술분과

ESCA
숙미
설미
클패시월
아침
묵아람

Creative Leaders with Power of Thinking

변화된 환경에의 적응을 넘어
그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숙명리더의
큰 걸음이 시작됩니다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ampus Map



제 1 캠퍼스

- 01 순환관(본관)
- 02 수련교수회관
- 03 행파교수회관
- 04 진리관(대학원관)
- 05 명신관(서관)
- 06 새힘관
- 07 행정관
- 08 학생회관
- 09 창업보육센터
- 10 평화문(제1캠퍼스 정문)
- 11 명재관(기숙사)
- 12 지혜문(서관)

제 2 창학 캠퍼스

- 13 르네상스 플라자
-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 14 음악대학
- 15 사회교육관
- 16 약학대학
- 17 미술대학
- 18 백주년기념관
- 19 자유문(제2창학캠퍼스 정문)
- 20 한국음식연구원
- 21 중앙도서관
- 22 이과대학(과학관)
- 23 다목적관

부속 건물

- 24 백로국제관
- 25 매화국제관
- 26 숙명인재관
- 27 새빛관
- 28 구국관
- 29 국제4관
- 30 국제5관
- 31 국제6관
- 32 국제7관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정보센터

140-74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tel. 02. 710. 9920 fax. 02. 2077. 7154

발행처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

기 획 숙명여자대학교 홍보팀

디자인 아라티장플레이스 02. 2285. 5691

The top half of the image features a solid blue background. Overlaid on this background are several vertical bars of varying heights and shades of blue, creating a modern, abstract architectural or digital aesthetic.

CREATIVE LEADERS WITH POWER OF THINKI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WWW.SOOKMYUNG.AC.KR